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695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8년 8월
교육학석사(유아교육)학위논문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과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박 나 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과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at a Day Care Center on Children's Verbal Expression and Peer Competence

201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박 나 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과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서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유아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박 나 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나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주 성 (인)

심 사 위 원　　박 미 자 (인)

심 사 위 원　　서　　현 (인)

201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문제 ····· 9

C. 용어의 정의 ····· 9

1. 사진찍기 기자활동 ····· 9

2. 유아의 언어 표현력 ····· 10

3. 유아의 또래 유능성 ····· 11

Ⅱ. 이론적 배경 ····· 12

A. 사진찍기 ····· 12

1. 사진의 개념 및 특징 ····· 12

2. 사진의 교육적 활용 ····· 17

B. 기자활동 ····· 20

1. 기자의 개념 및 특징 ····· 20

2. 기자활동의 교육적 효과 ····· 2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사진찍기 기자활동 26
D. 유아의 언어 표현력 29
E. 유아의 또래 유능성 32
Ⅲ. 연구방법 36
A. 연구대상 36
B. 연구도구 37
1. 유아의 언어 표현력 검사도구 37
2. 유아의 또래 유능성 검사도구 39
C. 연구절차 42
1. 실험설계 42
2. 예비검사 44
3. 검사자 훈련 45
4. 사전검사 46
5. 실험처치 46
6. 사후검사 60
D. 자료 분석 60
Ⅳ. 연구 결과 6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61
B.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64

Ⅴ. 논의 및 제언 67
A. 논의 및 결론 67
B. 제언 76

참고문헌 78

부록
1. 유아 언어 표현력에 대한 검사도구 91
2. 유아 또래 유능성에 대한 검사도구 9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목차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집단별 성 및 연령 구성 ····· 36
<표 2> 언어표현력 검사 도구 하위영역 채점 기준 ····· 39
<표 3> 또래 유능성 하위 영역 별 문항 ····· 40
<표 4> 유아의 또래유능성 행동 관찰 평정 척도의 예 ····· 41
<표 5> 실험설계 ····· 42
<표 6>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일과 운영 ····· 47
<표 7>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활동비교 ····· 51
<표 8> 실험집단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 계획안 ····· 53
<표 9> 실험집단이 유아들이 스스로 만든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의 내용 ·· 57
<표 10>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 61
<표 11>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대한 공분산분석 ····· 63
<표 12>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 64
<표 13>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공분산 분석 ····· 6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절차 ····· 43
[그림 2]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 전개과정 ····· 49
[그림 3]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의 교수·학습단계 ····· 5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 of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at a Day Care Center on Children's Verbal Expression and Peer Competence

Nayoung Park
Supervisor Hyun Se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Chosun Univers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lucidate the effect of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conducted at a day care center on 5-year-old children's verbal expression and peer competence.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developing a direction for reporting activity and education programs that strengthen children's verbal expression and peer competence. The following study questions were addressed.

1. What effect do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at a day care center have on children's verbal expression?

2. What effect do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at a day care cente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ave on children's peer competence?

This is an empirical study that investigated the effect of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at a day care center on 5-year-old children's verbal expression and peer competence.

Study subjects were 20 children aged five or younger attending D kindergarten and another group of 20 children aged five or younger attending C kindergarten based in G city.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the 20 children at D kindergarten, and the control group of the 20 children at C kindergarten.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ver 10 weeks from July 3 to September 8, 2017. A total of 20 sessions was given. The experimental group selected daily subjects of the Nuri Curriculum and carried out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at the day care center. The control group had discussions on feelings about the day care center's routine activities based on daily subjects.

A linguistic competence assessment tool developed for 4- to 6-year-old children by Yeongae Jang (1981) was modified to measure the children's verbal expression in this study. A teacher's rating scale for preschool children's peer competence developed by Juhui Park and Eunhae Lee (2001) was applied to measure the children's peer compet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at the day care center on children's verbal expression and peer compete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and an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was conducted. The reason for using *ANCOVA* was the minimization of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rrors between the two groups that may have existed prior to the experiment. The pretest was controlled with covariates, and an examination of whether posttest scores demonstrated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as conduct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at the day care cente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ubareas except for children's total verbal expression and creative expression. Children listened to and observed their peers during the day care center's routine photography activity with which they were familiar and learned way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report-writing activity in which children had a small-group discussion stimulated linguistic interaction between them. Presenting reports induced them to try to deliver correct speech, contributing to improved verbal expression. Second, the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at the day care center turned out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total peer competence and its subareas. Through the process of small-group report writing, children helped each other and actively proposed their opinions. They had the opportunity to take an active role themselves and controlled their emotions and behavior. The activity effectively improved peer competence, as children had to accept the thoughts and emotions of others.

In conclusion, the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at the day care center had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verbal expression and peer competence. This suggests that photography and reporting activities at day care centers are applicable to early childhood classroom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verbal expression and peer competenc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Schwab, 2016),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김진형, 2016).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추세이다(송윤나, 박희숙, 2017). 특히, 유아교육의 현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활용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미래 인재인 유아를 위한 교육매체 및 교육 자료나 교육방법 분야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차현진, 2017). 즉, 직업이나 나이 조건의 벽을 허물고 서로 나누고, 소통을 통하여 함께 무엇인가를 직접 만들어 가는 체험의 방식을 통해 창조적 행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중앙일보, 2018). 따라서 21세기형 인재는 홀로 공부하는 것보다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학습에서 더 높은 성취를 올리는 협동가이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감각을 지닌 커뮤니케이터이다(류태호, 2017). 그러므로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21세기형 인재역량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며, 교육의 시작이 되는 유아기부터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 폰이 생활의 필수 아이템이 된 현재, 사람들은 사진찍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모바일로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좋아한다(황영미, 이재현, 2017).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교사가 카메라를 들고 활동하는 영유아의 하루일과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SNS나 스마트 알림장과 같은 어플을 이용해 학부모와 공유하고 소통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유아에게 사진찍기 활동이 어렵다고 인식하여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안신혜, 2017), 지금은 쉽게 찍어서 보고 즐기는 친숙한 매체가 되었다(김경철, 박현진, 2005; 안경숙, 임수진, 2011; 한은혜, 김영실, 곽경화, 2017). 그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직접 사진찍기를 하나의 교육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김광수, 김현정, 2016), 유아들이 직접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보거나, 유아들이 찍은 사진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양진희, 2014).

이처럼 유아가 직접 사진을 찍어보는 활동은 유아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기도 하는데 사진 활동이 감상, 탐색, 표현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노연숙, 현혜연, 하동환, 2007). 다시 말해 유아들은 사진을 찍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자신의 생각을 사진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사진을 다른 사람과 함께 감상하는 경험을 통하여 타인과의 생각 차이를 알 수도 있게 된다(김경철, 박미정, 2009). 또한, 유아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유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더 나아가 유아가 직접 찍은 사진을 연계하여 학습 활동을 할 때 유아의 흥미를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노연숙, 현혜연, 하동환, 2007; 이모아, 2013; 이수영, 2012). 뿐만 아니라 사진이 실물이나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 줌으로써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바로 전달되며, 사진과 언어를 함께 활용하면 사진으로만 설명하거나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더욱 생생하게 상황이 재연되어 자세하게 설명 할 수 있다(Demarie & Ethridge, 2006). 특히, 유아가 찍은 사진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유아에게도 표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교육매체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정원, 2007), 사진을 보고나서 다양한 후속활동을 실시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과정에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최연철, 신설아, 2013).

이를 종합해 보면 유아가 직접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자신이 찍고자 하는 사물을 좀 더 깊이 관찰해야 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서 상황을 설명 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진을 감상하는 가운데 유아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아가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사진의 내용을 이야기 한다면 언어표현이 서투른 유아에게는 사진을 보면서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사진이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진관련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사진의 긍정적 기능에 따라 유아교육현장에서도 사진을 다양한 방법의 교육매체로 이용하며, 이에 따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활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언어표현 향상(양진희, 2014; 이수영, 2012; 이승혜, 2006), 예술교육의 도구(장유진, 2015), 시 창작교육의 가능성(장화심, 유성호, 2006), 숲 체험활동(김은정, 조부경, 2013; 서혜정, 2013), 환경 교육활동(최명하, 조부경, 2012), 기억력 향상(이소라, 김문희, 양종훈, 2016),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해변화(김경철, 박미정, 2009), 이미지 리터러시 능력 향상(노연숙, 현혜연, 하동환, 2007; 안문혜, 2014; 이경률, 공주희,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사진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진이 유아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학습과 언어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발달 특성상 말로만 표현한다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아들은 직접 사진을 찍어 본 후 사진을 보면서 표현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은 언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말하기의 기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사진찍기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기자활동으로까지 연계·확장하는 교육 활동을 실시해 본다면, 유아들의 언어표현은 물론 또래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에 또래유능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또한, 유아가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언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도된 기자활동(양진희, 2014; Neuman, Copple, Bredekamp, 1998)은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의미 있는 학습도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유아들이 기자가 되어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언어의 적절한 선택을 연습하게 되고(김수연, 2012), 또래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자세 등을 자연스럽게 모델링하여 말하기 능력이 향상 될 수도 있으며(김영옥, 2012),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자가 되어 말하는 과정에서 말하기의 바른 태도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허정심, 2004). 그러나 유아들이 글로 써서 기자활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Piaget는 전조작기에 해당되는 유아들이 언어를 구사하고 상징적 사고가 생기는 시기라고 하였다. 언어는 표상의 방법으로써 추상적 사고를 상징화하는데, 유아는 주로 직관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를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유아기에는 표상이 쉽도록 구체물을 통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체물의 선택을 Dale은 발달 단계가 낮은 유아는 직접 경험에 가까운 방법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정옥분, 2013). 따라서 연령이 어리고, 아직 글을 어려워하는 유아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활동한 사진이라는 매체는 구체적인 경험을 드러내 줄 수 있고, 유아들이 쉽게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경률, 공주희, 2010). 이에 유아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직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활동을 한다면,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언어표현이 가능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또래 유아들과 상호작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사진찍기 기자활동은 유아들이 기자가 되어 발표할 때 자신이 활동한 친숙한 모습의 사진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말할 때도 자신감을 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가 찍은 사진을 표현할 때에도 사진 속 사건이나 등장인물, 배경 등 모든 것들이 사진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묘사하여 표현하게 되므로 폭넓은 어휘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풍부한 언어표현이 가능해 진다(양진희, 2014). 특히, 어린이집은 유아 자신이 오랫동안 지내왔던 장소로 낯설지 않고 친근한 곳이다. 평소 생활하던 유아의 일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교육 활동의 매체로 사용한다면, 보다 활발한 사진찍기 활동과 유아의 흥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사진 속에 담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언어로 표현할 때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일과 활동을 사진찍기 기자활동으로 활용했을 때에는 유아들이 평소에 했던 행동이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주제를 쉽게 선정할 수 있고, 그 주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낼 수도 있다. 또한, 기자 역할을 하는 유아의 발표를 듣는 다른 유아들은 어린이집 일과 활동을 했던 자신이 기사 속 사진의 주인공이 되므로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되며,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또래로부터 듣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또래유능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유아가 흥미있다고 생각되는 어린이집의 일과를 스스로 선택하여 그 활동을 사진으로 찍은 후, 이를 활용하여 기자활동을 하게 되면 글로만 표현하여 전달했을 때보다 좀 더 쉽게 활동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아들이 사진 속 상황을 참고하여 기사 주제를 정하고 다른 유아들과 함께 기사를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이기숙, 2016).

이처럼 유아들은 서로 소통하는 기술을 익히고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또래의 설명을 들으면서 폭넓은 언어표현의 방법을 익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이윤영, 이문옥, 2010). 또한, 기자가 되어 또래들 앞에서 기사를 발표하는 순간은 사진의 상황 관련 주제에 맞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특히,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어 기존 수동적 활동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어활동으로 바뀌게 되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 한다(허정심, 2004). 결과적으로 유아의 능동적인 기자활동은 자발적인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표현해 보는 경험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다양하게 말해 볼 수 있게 된다(김영옥, 2012). 이러한 말하기의 경험을 통해 어휘력은 물론 목소리의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조절할 수 있고 발음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뚜렷한 내용을 정리하고 말끝을 흐리지 않는 말 맺음 방식과 표정이나 동작을 고려한 표현을 알 수도 있게 된다(김수연, 2012).

특히, 유아들은 언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며 자신이 아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력을 좀 더 확장해 나간다(최정아, 김혜순, 2011). 유아는 발달 특성상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언어라는 상징적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수영, 2012). 반면, 사진이라는 구체적인 매체를 제공해 주고, 이를 토대로 언어활동을 실시하고(이승혜, 2006),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더욱 풍부하게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Demarie & Ethridge, 2006). 또한, 유아가 기자가 되어 기사를 작성한 후 발표하는 일련의 경험으로도 언어표현력은 향상되어 질 수 있다(조진희, 2016). 언어표현력 관련하여 사진을 활용한 선행연구들(김경철, 박현진, 2005; 박미정, 2009; 박현진, 김숙자, 2009; 배연희, 2010; 양진희, 2012/2014; 이경률, 공주희, 2010; 이수영, 김경철, 장연주, 최연철, 2012; 이승혜, 2006; 최연철, 2005/2009)과 기자활동을 한 선행연구들(김수연, 2012; 김영옥, 2012; 조진희, 2016; 허정심, 2004)은 언어표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유아들이 사진을 활용하면서 기자활동을 하였을 때 집중시간이 짧고 쉽게 산만해지기 쉬운 유아에게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는 교육 활동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더 나아가 기자활동에 참여 할 때 확장된 사고로 언어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육활동으로써 사진만 활용하였거나, 기자활동만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을 통합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진찍기 활동과 기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동을 함께 연계하여 사진찍기를 활용한 기자활동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즉, 어린이집의 일과 활동을 찍은 사진을 보면서 유아들이 함께 기사를 써 본 후, 작성한 기사를 다른 유아들 앞에서 발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언어 표현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기자 역할을 하는 유아들의 발표를 듣는 다른 유아들은 발표자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칭찬해 주면서 적극적 경청의 자세를 알아가기도 하고, 이를 통해 또래 간의 서로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표현력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가 또래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는 협력을 경험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유능한 사회적 능력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유경훈, 강순미, 2014).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 중 특히 또래는 유아와 수평적 지위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권연희, 2012). 이에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박주희, 이은해, 2001)인 또래유능성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곽운숙, 2018; 박은미, 2007; 정설희, 류은주, 안연경, 2010; 지성애, 정재은, 2011). 다시 말해 유아들은 또래 유아들과 잘 어울리며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갈등상황도 잘 해결해 나가면서(강은선, 2010; 송미선, 199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가는 방법도 터득하게 된다(Master, Furmam, 1981).

또래유능성과 관련한 최근 연구들은 또래유능성과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김보영, 2015; 박민지, 김민진, 2016; 유란희, 김선희, 2017; 이승미, 하지영, 서소정, 2016; 최윤지, 2016)과 창의적 음악활동(서태균, 류경희, 2016), 일상생활 관련 수 개념 스토리텔링 활동(서현, 김석언, 박미자, 2017), 동요를 활용한 협력적 신체활동(정은화, 방은영, 2017) 등을 통해 또래유능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러나 유아들이 어린이집 일과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사진으로 찍어 본 후 소그룹 토의를 실시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기사로 활용할 사진을 선정한 후, 기사를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 또래들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가 성장하면서 맺게 되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서 또래유능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들이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과 또래유능성을 탐색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있어 생소하지 않고 친숙한 장소인 어린이집에서의 일과를 자유롭게 직접 찍어보는 사진촬영 활동을 실시한 후, 유아가 직접 찍은 일과활동 사진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소집단별 토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이를 또래와 협력하여 기사를 만들어 보는 기자활동을 한다. 그리고 유아들은 그룹별로 작성한 기사 내용을 토대로 직접 기자가 되어 발표하는 단계를 경험하고, 이를 평가하고 감상하는 활동으로 마무리 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사진을 촬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래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될 것이며, 또래들과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기사를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기자활동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유아들이 서로 나누고 소통하면서 함께 기사를 만들어가고, 발표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추후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C. 용어의 정의

1. 사진찍기 기자활동

사진은 일종의 연설이며 메시지를 나르고 있거나 메시지 자체로써(김철권, 1999), 의미 있는 경험이나 사건을 사진 속에 담아 남아있는 감정과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매체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표현의 또 다른 방식이다(Berger, 2000). 또한, 기자는 말 그대로 전달자로 세상에 널리 있는 사실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골라 간추려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홍은희, 2002), 기자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취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취재기자의 역할과 기사를 직접 보도하고 소개하면서 진행도 담당하는 앵커의 영역 즉, 포괄적 개념의 아나운서 역할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유아가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고 직접 찍은 사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가지고 모둠별로 기사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자가 아나운서 역할까지 하는 과정을 기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은 유아가 어린이집 일과 속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일과 활동 중인 또래들을 직접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모둠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토의하면서 함께 기사문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활동으로써, 이 과정에서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다.

2. 유아의 언어표현력

유아 언어표현력이란 유아가 대화하는 상대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 등을 다양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며 문법에 맞는 바른 문장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으로(김은희, 2017), 이야기를 구성하고 내용을 연계하는 것(노은아, 최미숙, 2007)이다.

본 연구에서 유아 언어표현력은 유아들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상황과 대상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일관성 있게 창의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표현하는 능력이며, 장영애(1981)가 제시한 단어 수, 문장 수, 내용의 일치, 내용의 연계, 창의적 표현으로 구성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 또래유능성은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뿐 아니라 인지적·정서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며(정지나, 2006), 또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과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러 유아와 잘 어울리고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는 사교성과 친구들에게 민감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친사회성, 그리고 친구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박주희, 이은해, 2001).

본 연구는 유아가 직접 사진 찍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아들과 고루 잘 어울리고 우호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여 생각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면서 자신의 목표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박주희와 이은해(2001)가 정의한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소인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으로 또래유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A. 사진찍기

1. 사진의 개념 및 특징

사진은 물체의 모양이나 상태를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국립국어원, 2016)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오브제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임윤정, 유택상, 2011). 사진은 처음 '헬리오그래피', '디게레오타입', '칼로타입'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초기사진술의 체계를 세우는데 많은 업적을 남긴 John Herschel이 '포토그래피(photography)' 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정한조 1997). 사진(PHOTOGRAPHY)은 '빛의 그림'이란 뜻으로 그리스어로 '빛(PHOS)'과 '그린다(GRAPHOS)'의 합성어로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물의 빛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 '빛으로 그린 그림'이란 의미이다(임안나, 2013) 우리나라에서는 '베낄 사(寫), 참 진(眞)'으로 '진실을 베끼는 것'을 말하며 실물과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사(寫)적인 측면과 내면의 정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진(眞)의 측면을 강조한 동양 회화정신의 전신(傳神) 철학이 담겨있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사진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장 현대화 된 예술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인간에게 미적수단(김은정, 2013),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안신혜, 2017)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을 보는 관점은 과학적인 관점, 예술적인 관점, 교육적인 관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김은정, 2013; 안신혜, 2017; 이정, 2018;), 현대사회에서 사진이란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으로 필름이나 인화지에 화학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인화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배은미, 2008). 즉 과학적 관점에서 사진은 사물의 형태를 눈으로 보듯 재현하는 기술적이고 기계적이며 다차원적인 영상인 것이다(이수영, 2012). 예술적 관점의 사진은 단순한 기계적 기록을 넘어서 이미지에 대한 발견의 과정을 통한 발견의 예술, 인식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안신혜, 2017). Shore(2002)는 사진을 미적 대상으로 보고 사진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시각적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찍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최연철, 신설아, 2013). 각자 자신의 눈을 통해서 본 세상을 표현하기 때문이다(이경률, 공주희, 2010). 다시 말해 사진은 찍는 이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사진 속 대상이 보존되고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영상인 것이다. 교육적 관점으로의 사진은 예술교육과 디지털 교육이 있는데 예술교육은 사진과 관련한 미술 및 예술교과가 되며, 디지털교육은 디지털 기기의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하게 매체의 특성을 알고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승, 20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진은 이미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미지를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도구가 된다(김지영, 2011). 또한 사진 이미지는 다른 매체들의 이미지와는 달리 현실과의 연관성이 탁월하여 교육적 메시지를 현실적 실천으로 옮기는데 더욱 뛰어난 교육 효과가 있으며((이경률, 공주희, 2010), 사람의 눈으로 본 형태 중에서 재현하고 싶은 시간과 공간을 찍는 이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사진 속의 평면으로 표현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문정은, 2014). 종합해 보면 사진은 존재, 그 자체를 보여주지만 수천 마디의 말을 능가하는 시각적 요소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구축하여(Rand & Zakia, 2011) 함축된 언어를 담고 있는 시각적 매체이며 현실을 기록하는 기록물이 된다. 또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경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관심과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과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사진은 여러 분야에서 폭 넓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진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 사진의 특성에 대해 선행연구들(김기국, 2003; 배은미, 2008; 안문혜, 2014; 이수영, 2012; 최명하, 2012; 한정식, 2004)은 사진의 특성을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공통적인 사진의 특성은 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고립성, 현실성, 전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의 고립성은 사진에서 작가가 포착한 이미지는 연속된 시간에서 분리되어 우리 앞에 놓여 진 순간이며,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은 연속적인 현실 세계에서부터 포착된 프레이밍(안문혜, 2014) 즉, 중력이 사라졌을 때 그대로 멈추어 버린 것처럼 시간에서 분리되어 모든 배경은 사라지고 포착된 사물만 남아있게 되는 다른 것으로부터 고립이 생기는 것이다. 고립되는 순간 사진 속 밖의 사건을 상상하게 되고 사진 속 사건 이전에 이루어졌을 사건과 사진 속 사건 이후에 진행될 것까지도 생각을 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사진은 현실에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행동이나 사건을 카메라에 담아 봄으로써 현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일과 활동 중 어떤 한 장면을 선택하여 순간 포착으로 카메라에 담아냈을 때 그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는 유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즉 사진 속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전 장면과 이후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 뿐만 아니라 또래 유아나 배경에 대해서도 상상력과 함께 다른 창의적인 이야기까지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고립은 실물이나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살아있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사실적이며 정확함을 근거로 한다(안문혜, 2014). 다시 말해, 사진은 대상을 직접 담아내는 현실적인 기록이 되며, 찍은 사진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현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보여 지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현실을 담아내는 동시에 현장에 존재하였음을 이야기한다. 사진은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현실성을 기본으로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일과의 사진을 제공하였을 때 유아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만들어 갈수 있는 좋은 특성이 된다. 또한, 우연하게 찍힌 유아교육기관의 일과가 담긴 사진은 유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나 장면들에 대하여 또래 유아들과 함께 좋은 의미의 순간을 제공받기도 할 것이다. 유아가 찍은 사진은 그 시점의 현실을 완전하게 복사해주는 현장 기록으로 유아에게는 경험 이상으로 생생하고 사실적 느낌을 제공해 주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는 자신이나 또래 유아들과의 일과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실물이나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진을 봄으로써 알 수 있는 전달성을 가진다. 이에 미국의 사진작가 겸 이론가로 알려진 Feininger(1981)는 '사진 예술의 창조'에서 상형언어 중 가장 완벽한 언어를 사진이라고 한다(김은정, 2013). 이러한 사진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보고 느낀 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유아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이정원, 2007). 사진은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언어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장화심, 유성호, 2006). 결과적으로 유아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유아들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어려움을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하도록 유도하면 표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진은 이야기의 소재를 만들어 주는 발견적 기능을 하는데 사진가가 만들어 낸 현실이 아니라 현실 사물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사물을 대상으로 삼아 만들어진 현실의 한 조각이 된다(한정식, 2004). 이것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실에서 벌어졌던 상황이지만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이나 지나치기 쉬운 모습들을 포착해서 카메라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고선경, 2006). 따라서 유아는 찍는 순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찍혀진 사진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또래 유아들과 새로운 이야기꺼리가 생겨 보다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며,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즐거움과 뿌듯함까지도 선사받는 기쁨을 갖게 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사진의 고립성, 현실성, 전달성의 특성 때문에 수업과 학습 상황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교사나 수업보조 자료로 사진을 미리 준비하여 학습의 흥미나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업과 학습상황에서 사진촬영 관련 기능이 아니라 다른 학습 목표의 성취를 꾀하는 경우에도 사진을 하나의 학습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김광수, 김현정, 2016). 또한 사진의 언어적 기능과 재방문 제공의 발견적 기능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진의 활용은 좋은 언어교육의 매개체로 사용한다. 언어교육의 매개체로의 선행 연구는(엄주익, 2014; 이수영, 2012; 이수영, 김경철, 장연주, 최연철, 2012; 이승혜, 2006; 이정원, 2007; 장화심, 유성호, 2006; 정윤희, 2015)등이 있고, 기타 교육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는 선행 연구는(김은정, 조부경, 2013; 문인경, 2013; 배연희, 2010; 서혜정, 2013; 이은우, 2014)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는 사진이 언어적 표현만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사진을 보면서 주변 사물에 대한 주의 깊은 탐색이 가능하게 되어 생각을 표현하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시각적 표현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여 표상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교육 매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중요한 교수매체로서 사진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이용한다면 학습효과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매체로 의미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사진의 교육적 활용

스마트 폰과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는 사진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이는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못지않게 학문 분야에서도 과거로부터 의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비중 있게 활용되고 있다. 유아교육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사진, 비디오 등 시각적 매체를 사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진의 교육적 활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아교육분야에서 사진이 활용된 것은 1900년대 초반 Gesell이 여러 해에 걸쳐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많은 아동에 대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정과 정상적인 성장에 대한 일정표를 만들어 연구에 활용한 것을 들 수 있다(최연철, 2005). 실질적인 교육현장에서는 시각 자료로 사진을 활용하고, 자기표현의 도구이자 언어로서 활용하며 예술 감상과 청각장애 아동의 시각적 개발도구로, 정서치료의 도구로 활용하였다(이경률, 공주희, 2010). 또한 김경철과 박현진(2005)은 사진이 단지 실제적 순간을 기록하고 평면적·시각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공간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특별한 교수학습매체로 교육적 활용 목적에 따라 평가용, 연구용, 학습용, 전시용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사진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사진의 교육적 활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진은 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이다. 사진은 기존 교육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조적 도구로 활용 하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유아들도 쉽게 촬영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학습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교사와 유아가 직접 찍은 사진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무엇을 강조하는지 나타남으로 교육에 적용하기가 더욱 용이하다(김경철, 박현진, 2005). 또한 사진 찍는 행위를 통해 일련의 과정을 기억하게 되고, 직접 촬영한 사진을 통해 학습 내용을 재확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은 유아의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이소라, 김문희, 양종훈, 2016). 더불어 사진이 집중력과 학습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사진의 면밀한 관찰과 이해로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사진의 이해와 활용에 따라 학습능력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이경률, 공주희, 2010). 이는 사진이 다양한 외적 매개체 중의 하나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김경철, 박현진, 2005)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학습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여(안지희, 2005)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동기 유발에 효과적인 학습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진은 원활한 소통의 매개체이며 표현의 매개체가 된다. 사진도 일종의 '언어'이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을 구체적인 실물이나 현장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언어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장화심, 유성호, 2006). 사진은 여러 영상 매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로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의 창작과 표현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김지영, 2010). 이렇듯 유아들이 사진을 계획하고, 촬영하고, 소통하고, 반성하는 일련의 사진 활동 과정을 수행하면서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을 탐구하게 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 표현능력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이경률, 공주희, 2010). 유아들은 서로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알게 되며 새롭고 풍부한 대화를 하게 된다(김경철, 박현진, 2005). 따라서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을 엮어 말과 글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표현하게 되는 사진은 기술적으로나 기능적인 면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유용성은 어떤 매체에 비교해도 효율적이고 기능적이다(정재한, 2009). 그러므로 사진의 다양한 기능과 표현력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사진은 유아와 교사를 평가하는 매개체로 활용된다. 사진은 유아들의 활동을 기록하는데 매우 유용한 매체로 교사는 유아의 모습과 작품을 사진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담아 유아의 여러 가지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유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이모아, 2013). 유아들이 같은 주제로 사진을 찍어 전시하면 작품을 감상, 분석, 비교가 가능하다. 이때 유아들은 자신의 작품이나 진행 과정을 찍은 것을 전시하고 전시된 사진을 감상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반성의 기회가 되며, 스스로 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배연희, 2010).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사진을 유아의 현재 발달 상태와 교육과정 내에서의 학습 상태를 반영하는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김경철, 박현진, 2005). 교사가 찍은 사진은 피드백 과정에서 하루의 일과 또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생각하고 다시 발견하고 반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계획을 구성할 때 좋은 매체가 된다. 또한 사진을 통하여 활동에서 중요한 점이나 간과한 부분, 보완점 등을 발견 할 수 있고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배연희, 2010). 따라서 사진은 교사의 수행평가와 유아 스스로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진은 효과적인 학습의 매개체로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며 반성적 사고와 평가의 매체로 활용되는 도구이다(문정은, 2014). 특히 유아가 직접 찍은 사진은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좋은 매체가 되며 유아들에게 기분 좋은 경험을 주어 흥미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며 타인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해 준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사가 사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유아가 직접 찍어보는 유아 중심의 교육적 활용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기자활동

1. 기자의 개념 및 특징

기자는 말 그대로 전달자(Reporter)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널리 있는 사실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것을 골라 간추려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다(홍은희, 2002). 국어 대사전에서는 기자를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기사를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자란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문서의 초안을 잡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그중 “방송기자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스를 담당하는 기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6).

방송기자의 세계에서 방송기자를 이재강(2012)은 출입처 기자와 비 출입처 기자, 편집부 기자, 특파원, 앵커로 구분하였다. 출입처 기자와 비 출입처 기자는 특정 출입처의 방문이나 상주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데 취재 대상을 주기적으로 방문이나 상주하면서 해당기관이 생산한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를 출입처 기자라고 부른다. 편집부 기자는 뉴스를 예고하고 헤드라인 등을 작성 제작하고 각 아이템의 제목을 뽑으며 자막을 감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특파원은 일정한 취재 경력을 가진 기자들 중에서 선발하고, 해외에 파견되는 기자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앵커는 지상파 방송사의 매인 뉴스 진행자로 남자 앵커는 모두 기자로 보도를 소개하고 인터뷰와 해설 현장에 직접 나가 보도도 하며 여자 앵커를 아나운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기자를 정의할 때 “모든 것에 대해 조금씩은 알아야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아야(something about everything about something)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방송기자는 인쇄매체가 아닌 전파매체를 통해 취재 및 뉴스를 전달하는 직업으로 방송기자와 신문기자가 하는 일은 똑같고 글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쓰는 것도 똑같다(윤재홍, 2008). 다른 점이 있다면 방송을 통해서 말 즉, 리포트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방송기자의 특성이 구별된다. 방송기자는 아나운서와 기자의 역할이 결합된 형태로서 양쪽 모두의 능력을 겸비하여야 되기 때문에 방송기자를 '리포터' 또는 '프로듀서'라고 부르기도 한다(조진희, 2016). 방송기자는 방송을 위하여 기사 작성을 하며, 뉴스 프로그램 등에 직접 출연하여 아나운서로서 뉴스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김수연, 2012). 기자는 영역에 따라 역할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기자의 위상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윤리 의식 등이 요구되는 준 전문직(이진성, 2016)으로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호기심, 그리고 역사관이나 넓은 미래에 대한 소양을 가져야 한다. 즉, 기자는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치 있는 사실들을 수집하고 다듬어서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신문이나 방송 등의 전달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신문을 이용하여 전달하면 신문기자, 방송을 이용하면 방송기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아나운서라고 부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자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취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취재기자의 역할과 기사를 직접 보도하고 소개하면서 진행도 담당하는 앵커의 영역, 즉 포괄적 개념의 아나운서의 역할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유아가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고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고, 작성된 기사로 발표자를 정하여 발표하는 역할까지를 기자로 정의하며, 기자활동은 그룹별로 나누어 아나운서 역할까지 모두 포함하여 활동하는 일련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자는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우리말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이승현, 조인희, 2011) 그리고 교양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풍부한 어휘력을 동원해 시청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언어 구사력은 필수요소이며, 순발력과 융통성의 방송 감각이 필요하다. 이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각으로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므로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뢰감과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중파 방송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방송의 내용을 정확한 언어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송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며, 무엇보다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전달력을 기본 소양으로 보고 있다(허정심, 2004). 이러한 정확한 표현력과 언어구사력의 소양은 기자활동에서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전달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른 유아들과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소양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할 면에서 기자는 스포츠, 뉴스 및 MC나 행사의 중계 등 마이크나 카메라 앞에 나서서 활동하는 언어 전문가이다. 진행자(host)이며 조정자(moderator)로, 사회자(Master of Ceremonies:MC)나 해설자(caster)로 또는 대담자(interviewer)로서의 방송 진행 업무를 담당한다. 기자는 방송 메시지의 전달자요, 전달 기술의 전문가로 이는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신문과는 달리 대면구조에서 방송 내용을 일회적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허정심, 2004).

또한 방송의 수용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전달자역할, 상징적 역할, 대변인 역할, 교육자로의 역할로 구분하였다(이승현, 조인희, 2011). 먼저, 전달자의 역할은 프로그램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방송에서 필요하거나 알려주어야 할 정보를 구별하여 선택하고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모둠으로 구성되어 그중 대표하는 한명의 발표자가 선정되어 발표를 하게 된다. 발표자는 모둠의 대표성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기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알릴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상징적 역할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대표하며 더 나아가 방송사 전체를 대표하기도 한다. 따라서 방송의 꽃이라고도 부르며 상징성을 띠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상징적 역할을 하는 유아는 모둠을 대표하여 발표를 한다. 발표자는 기사를 구성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때 여러 가지 나온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기사화 될 것에 대하여 다른 유아들과 의견을 충분하게 나누고 이해하여 조리 있게 이야기한다. 대변인의 역할은 프로듀서나 방송사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달하여 말해주는 사람이다. 본 연구에서 기사작성 내용을 다른 유아들에게 차분하고 정확하게 기사를 전달하고 기사에서 알려주려는 내용을 대변하여 말하게 된다. 여기에서 발표자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자의 역할은 단순히 재미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평상시에 올바른 생활로 사회 교육의 한 부분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유아들에게 있어서도 발표자는 단순히 활동의 내용만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활동 중의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게 된다. 이는 유아들 스스로 사건, 사고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큰 의미가 있다. 교사의 어떤 교육보다 또래에게서 듣는 이야기는 집중하게 되고 모방과 기억에 영향이 많음으로 유아들에게 있어서 교육적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자는 정확한 표준어와 적절한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방송사를 대표해서 방송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자활동은 정확한 언어적 표현은 물론 또래 유아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해 나가는 기자의 소양을 키우며, 다양한 역할 가운데 전달자와 발표자, 대변인, 교육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고자 한다.

2. 기자활동의 교육적 효과

기자활동은 Kostelnik, Sordeman와 Whiren(1999)가 제안한 작가 의자(Author's Chair)에 기반을 두고 말하기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이 활동은 유아들에게 그들이 쓴 일지나 스스로 만든 책을 전체 유아에게 읽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활동이다(Mcgee, Richgels, 1990). 작가 의자(Author's Chair)는 글쓰기의 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단계나 완성단계에서 큰소리로 읽도록 지정된 의자를 말하는데 초안을 다른 유아들에게 읽음으로써 긍정적인 피드백과 수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수 있다(https://www.smore.com/8xrgd-author-s-chair). 유아들은 그들이 쓴 것을 다른 유아들과 나눌 준비가 되면 매일 2-3명의 유아가 돌아가면서 읽게 되는데 읽고 난 후에 다른 유아들은 질문을 한다. 활동의 평가는 유아들이나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아가 생각을 글로 써서 전달하고 팀원이 결과물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허정심, 2004). 이 전략의 대표적인 활동인 아나운서 활동, 기자활동 등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유아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유아교육 현장에서 주요한 언어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수연, 2012). 이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방송기자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방송 기자활동을 실시하여 언어표현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고(조진희, 2016), 기상캐스터 활동으로 유아 스스로 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생각을 말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언어능력 발달에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김영옥, 2012).

유아는 자신이 듣고 읽고 경험한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하여 다시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언어적 사고를 만들어간다(허정심, 2004). 이 시기에 유아에게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제로 표현해 보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허정심, 2004). 하지만 느낌과 생각을 설득력 있게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며, 아직은 언어가 발달되지 않은 유아에게 있어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경험이다(이은영, 2000). 따라서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서에 나타난 언어 교육활동을 내용 체계별로 분석한 결과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순으로 나타나 말하기 활동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음이 보인다(윤진주, 김성재, 황지애, 조윤영, 2012). 이러한 결과는 유아를 위한 언어교육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신의 생각과 경험, 느낌 등을 자유롭게 말하는 활동이 중요하며 말하기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김순임, 2003)것과 맥을 같이 한다.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노영희, 김호, 2004; 이영자, 2009; 이차숙, 2004; 허미애, 2007). 읽기와 쓰기활동 이전에 유아에게 흥미로웠던 것을 말하기 소재로 삼아 여러 사람과 이야기 해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유아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전유영, 2011).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듣기와 말하기를 특별히 지도받지 않아도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듣기와 말하기 지도를 받은 어린이들이 받기 전, 또는 받지 않은 어린이보다 나아졌다는 연구(주영희, 2001)를 볼 때,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학습을 통해 향상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말하기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길러진다.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자연스러운 대화나 토의 등 다양한 형태의 말을 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말하기 지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김순자, 2000).

이를 종합해 보면 유아기에는 유아의 언어표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유아의 언어표현 즉 말하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의 기회를 주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진시키고 실제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영옥, 2012). 또한 위에서 고찰한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자활동의 중요성과 필요함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므로 김수연(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원리로 기자활동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는 유아가 하는 기자발표를 잘 듣고 유아수준에 맞게 발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다. 둘째, 교사는 언어발달 수준에 맞게 주제와 내용을 구성한다. 셋째, 유아 스스로 말 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한다. 넷째,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기자 발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섯째, 유아에게 스스로 기사를 표현하고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여섯째, 말하기 욕구를 갖게 하기 위하여 마이크나 카메라, TV, 빔 프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젝트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다. 일곱째, 기자발표 활동을 한 후에 효과적으로 말하고 올바르게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기본원리를 가지고 글로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써 표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말하는 경험을 갖도록 구성하여 기자활동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C. 사진찍기 기자활동

사진이 고립성, 현실성, 전달성 등의 특성 때문에 수업과 학습 상황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교사나 수업자료 제작자가 사진을 미리 준비하여 학습 동기 유발이나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이용하였다.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고, 핸드폰으로도 누구나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게 되어, 수업과 학습 상황에서 사진촬영 관련 기능이 아니라 다른 학습 목표의 성취를 꾀하는 경우에도 사진찍기를 하나의 학습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김광수, 김현정, 2016) 유아교육은 특성상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진을 활용한 통합적인 활동으로 구성하여 유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진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의성(김광수, 김현정, 2016), 공간능력(한은혜, 김영실, 곽경화, 2017), 환경 친화적 태도(김은정, 조부경, 2013; 최명하, 조부경, 2012;), 자율행동(이모아, 2013), 언어표현력(이모아, 2013; 이수영, 2012)등 다수의 선행연구들도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이 직접 카메라로 사진찍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유아들의 발달에 유용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정윤희(2015)는 사진찍기를 통하여 쓰기활동을 하는 것은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사진찍기의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진찍기는 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끈다.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촬영 결과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여 카메라가 유아에게 주어졌을 때 유아들은 카메라에 대해 높은 관심과 사진찍기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사진찍기는 유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든다. 유아가 경험을 선택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자신의 시각을 표현하고 해석하면서 경험을 회상하고 재구성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셋째, 사진찍기는 반성적 사고를 촉진한다. 사진은 유아가 직접 찍고 경험한 사진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재방문하고 반성적 사고를 한다. 넷째, 사진찍기는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Byrnes와 Wasik(2009)은 유아가 사진찍기 활동으로 자아 개념, 인내, 순서 지키기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익히게 된다고 하였다. 다섯째, 사진찍기는 언어발달을 돕는다. 사진찍기는 유아가 이야기를 하도록 동기를 일으키고 이 이야기는 문해 발달을 자극하여 언어의 발달을 이끌게 된다.

위에 나타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유아들은 사진찍기 활동을 통해 주변대상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가지고, 사진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들은 스스로 찍은 사진을 소재로 자신의 사진을 재검토함으로써 사전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으며, 과거 학습 경험이나 사건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아가 관찰한 것을 직접 사진을 찍어 본다면 교사가 제시하는 사진 자료에서 얻는 경험보다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유아들에게 어떤 주제를 정해 놓고 사진을 찍게 하였을 때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유아들의 시각을 볼 수 있다(문인경, 2013).

유아가 직접 사진을 찍는 것은 유아의 생각이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로 변화되는 일이라면 기자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구성하는 과정으로 말로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글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 앞에서 널리 드러내어 세상에 알린다는 뜻으로 발표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발표는 흔히 언어를 사용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발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 한다. 발표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은 비단 성인에 한정되지 않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다. 유아들의 발표능력은 성인이 된 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면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최세환, 2006).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논리적으로 말하는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며,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정확하고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의 발표 불안이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며, 유아의 말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동기 유발된 상황에서 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을 위한 언어와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김영옥, 2012). 또한 발표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반복적인 경험의 실천을 한다면 발표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배경희, 2006).

이를 종합해 보면 유아가 사진 찍는 것을 통하여 주변을 관찰하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경험을 기자라는 역할로 능동적이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기자로서 다른 유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자주 해 봄으로써 발표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따라서 사진찍기와 기자활동이 둘 다 생각을 표현해 내는 과정이므로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즉, 사진찍기 기자활동은 유아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다시 글로 표현하고 발표함으로써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통합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언어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가 사진찍기 기자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진으로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사고를 촉진시키며, 언어표현과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 유아의 언어 표현력

언어는 사람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세상에 태어난 후 언어를 통하여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많은 학습과 성장을 하게 된다(이숙재, 박인숙, 1996). 영아들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영유아기는 언어발달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듣고 보고 배운 언어는 인생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어린아이는 말과 글을 활용하면서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고, 언어를 통해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우며 자라게 된다(홍혜경, 김명화, 김정아, 김세루, 2014). 또한 언어는 자기의 생각과 의도, 느낌을 표현하며 사고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뿐 아니라 사고발달에 매우 결정적 요소가 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덕성과 도덕성 등 전인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남규, 최은영, 장석경, 2016). 따라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영유아들에게 있어 언어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더불어 유아의 언어교육은 바로 삶의 교육이 되어야 하며, 언어 그 자체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과 그 언어가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생활이 강조되는 교육이어야 한다(최은선, 2005)

유아의 의사소통은 행동이나 말로 이루어진다. 유아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상징적 기호나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생각을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유아기는 상상 활동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며, 자연과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심미감이 발달하는 시기로서 유아는 표상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고하는 것을 독창적으로 혹은 다양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이대균, 임자영, 2007). 그렇지만 21세기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주변의 많은 정보를 스스로 재구성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아기의 언어는 유아의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최경, 2012). 그러므로 유아가 가정환경에서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교육환경인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가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윤정희, 2009). 따라서 5세 누리과정에서도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이해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형성됨으로 또래나 성인과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 갈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유아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며 사고력을 키워 나간다. 유아의 언어표현력은 유아가 대화하는 상대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Lowenfeld, 1975)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현재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에 따라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최정아, 김혜순, 2011). 또한 유아가 습득해야 할 요소이며 유아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미 자신에게 획득되어 있는 언어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이윤영, 이문옥, 2010). 유아의 언어표현력은 유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Wellhousen. 1993), 이야기를 구성하고 내용을 연계하는 것(노은아, 최미숙, 2007)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언어표현력이란 유아들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상황과 대상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이끌어 내어 일관성 있고 확장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나타내기 위한 언어표현력의 하위 범주로 장영애(1981)가 제시한 단어 수, 문장 수, 내용의 연계, 내용의 일치, 창의적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단어’는 문법상 의미를 지니고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이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차숙, 노명완, 1994), '문장'은 단어를 적절히 결합하여 의미가 소통되도록 생각이나 느낌이 줄거리를 바탕으로 글자로 적어낸 것이다. '내용의 일치'는 제시된 상황속의 중요한 사태들과의 일치 정도이며, '내용의 연계'는 이야기가 인과성과 일관성을 갖는 정도를 말한다. 또한 '창의적 표현'은 제시된 그림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과 연관되거나 좀더 표현이 확장되는 상태이다(장영애, 1981). 유아의 언어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가 언어를 표현하는 경험이 유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흥미 있는 사건이나 상상력을 일으키는 소재를 중심으로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아의 자발적인 표현의 욕구를 증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풍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어휘의 확장과 문장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력의 발달을 통해 언어표현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영옥, 2003).

이에 언어표현력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찍은 사진을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가 높아지고 성취감을 얻으며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능력을 갖게 하였고(엄주익, 2014), 자신이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언어활동을 한 이수영(2012)은 능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며 유아들이 다른 유아의 이야기를 듣다가 생소한 어휘는 다시 질문하고 설명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반복하고 다양한 어휘를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언어표현력이 향상되었다(이수영, 2012). 또한 유아들이 촬영한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책 만들기 활동 방법으로 다양한 언어활동을 함으로써 이야기의 구성력이 향상되었고(김보연, 2018), 사진찍기가 유아 주도적인 활동으로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성과 쓰기발달이 이루어져 언어표현력에 효과적임을 밝혀주었다(정윤희, 2015) 이와 같이 실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소재를 사진찍기를 활동을 한 후 사진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언어표현력의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진을 활용한 언어표현에서 구어적 언어표현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측면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져 언어의 제 영역인 듣기와 말하기 쓰기와 읽기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진찍기 기자활동은 사진찍기 활동으로 학습에 흥미를 더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사진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말로써 다른 유아에게 전달하려는 유아들의 노력과 유아들이 서로간의 기자발표를 들으면서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기자활동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실시한다면 언어표현력 향상은 물론 유아교육현장에서 통합적 언어교육이 이루어져 유아 언어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되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E. 유아의 또래 유능성

현대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가정 내 자녀 양육에 대한 기능이 사회적 책임으로 변화하면서 유아들도 유아 교육기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일찍부터 유아교육기관에서 머물게 되면서 또래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또래란 나이, 성, 학년 등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동년배를 의미하며, 유아에게 대표적 사회집단이며 가정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또래집단 내에서 유아는 동등한 힘과 지위를 가지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해 가는 방법을 터득한다(조인영, 2016). 또래들이 맺게 되는 관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맺어진다. 유아들 스스로 맺기도 하고 교사가 맺어 주기도 한다. 다양한 활동 속에서 역동적으로 맺어지는 이 관계에서 유아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의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역할을 조정하기도 하고 서로의 감정을 조절하기도 한다(김현선, 2015). 이러한 조절을 통해 유아들은 또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여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사회 정서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준다.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갈등이나 협상과 같은 기술을 발달시키고 경험해 볼 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또래는 도움을 주고받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강화자로서의 역할, 모델로서의 역할,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조기연, 2011). 이와 같이 또래유능성(peer competence)은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잘 적응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박주희, 2001). 일반적으로 또래유능성은 사회적 유능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발달적인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을 또래유능성으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또래유능성을 유아가 또래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인 기술뿐 아니라 인지, 정서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능력이라고도 하였다(정지나, 2006).

이를 종합해 보면 또래유능성은 또래와 수용적이며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정서 사회적 기술 등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여 표현함으로써, 또래와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어 또래관계에서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또래유능성은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의 기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하위 구성요인에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을 제시하였다(박주희, 이은해, 2001).

먼저 사교성은 여러 유아들과 잘 어울리고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며 또래 친구가 많고 인기가 좋으며 여러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사교성이 높은 유아는 보다 다양한 또래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유지 할 수 있다(노주희, 2016). 일시적이며 정서적인 개입 없이 나타나기 시작한 유아의 사교적 행동은 약 2세경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더욱 개방적으로 변하고 낯선 사람에게도 친근함을 표현하는 등 사교성을 다양하게 표출한다(김수정, 최순영, 1995). 3세 이후부터 유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은 주로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아는 놀이 중에도 또래에게 주목 받고 인정 받고자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유아는 또래와 다양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놀이에 참여하여 갖는 여러 종류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많은 친구를 사귀고, 여러 유아와 고루 친하게 지내게 되는 등 사교성이 발달하게 된다(이진경, 2004). 사교성의 발달 정도는 다른 아이들과 고루 친하게 지내며 친구들이 많고 다른 아이들이 같이 놀고 싶어 해서 인기가 많으며 이 아이를 좋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박주희, 이은해, 2001).

친사회성은 다른 유아에 대해 잘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며 서로 갈등관계가 생길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가는 능력이다. 즉 다른 유아에게 양보를 잘하고 장남감이나 교구를 다른 유아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쓰며 어려움에 처한 유아를 잘 도와준다. 또한 다른 유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다른 유아와 갈등을 경험 할 때 타협도 잘 하게 된다(박주희, 이은해, 2001). 유아의 친사회성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나누기, 양보, 협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감과 타협의 행동에서 나타난다(박종수, 2008).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송명자, 1995). 2-3세경의 유아도 곤경에 처한 또래에 대해 이타적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자발적인 자기희생적 친사회적 행동은 드물게 나타나 4-6세경이 되어야 증가하기 시작하여 9-10세 경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박선미, 2011). 또한 자기보다 어린 유아에게는 사회적 행동을 관찰하고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강화 받는 기회가 많으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능력도 함께 증가한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은 또래를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나누고 위로하고 협동하면서 자신이 능력있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대인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주도성은 또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자발적이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탐구하는 자세를 말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며 다른 아이들이 따라할 만한 놀이나 활동을 제안하여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나 활동을 주도하며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를 재미있게 이끌어 가게 된다(박주희, 이은해, 2001). 또한 유아 스스로 표현하고 통제하고 또래의 권리와 느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래에게 설득하는 능력이다(이하원, 2014). 유아기는 인지적 측면에서 호기심이 높아지며 자발적인 탐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박주희, 2001)로, 경험의 다양성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주도성을 발달시키게 된다(김영희, 200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래유능성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관심과 인정을 받는 사고와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공통의 가치들의 내면화를 통한 친사회적 행동 패턴과 자율성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술 및 적극적인 주도성은 또래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하여 전반적인 발달에서 유능성 증진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김보영, 2015).

한편, 또래유능성은 교육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는 능력으로 또래유능성 증진을 위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협동미술(김도향, 2016; 박미희, 2015; 정은재, 2014; 조을순, 2008), 신체활동(이만수, 정세호, 2014; 이수진, 서현아, 한희정, 2013), 전래동요활동(강은주, 2009; 김남임, 2011; 문현정, 2015; 조기연, 2011), 전통놀이 활동(박영미, 2013), 자연친화 활동(신민정, 권연희, 2014), 독서치료 활동(이미나, 2009) 등이 또래유능성의 구성요소인 유아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이 증진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공동의 활동목표를 위해 또래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동학습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송현주, 2008).

그러므로 사진찍기 기자활동은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함께 지내고 서로 어울리면서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갈등관계를 조정해 가며, 또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 나가게 되어 공동체의 선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기사작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또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획된 협동 활동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증진되는 주도성과 사교성, 친사회성은 사진찍기 기자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D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 2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실험집단과 사회, 경제적 배경이 유사하고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G시에 위치한 C어린이집 만 5세 유아 2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연령은 실험집단 70.05개월, 비교집단 71.09개월로 두 집단 간의 연령별 비교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56, p>.05). 따라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아는 동질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의 교사는 4년제 대학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교육 경력은 모두 5년 이상이다. 연구 대상 유아의 성별과 평균 연령에 따른 집단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집단별 성 및 연령 구성

구분	사례 수	성		연령(개월)		t
		남	여	M	SD	
실험집단	20	12	8	70.05	4.07	.56
비교집단	20	11	9	71.09	3.26	
계	40	23	1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연구도구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유아의 언어표현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장영애(1981)가 4-6세의 언어능력 측정을 위해 제작한 검사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어휘력, 언어이해력, 언어표현력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언어표현력 영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언어표현력 검사 도구만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의 타당도는 언어능력에 관한 김재은(1992)의 지능검사 1부(낱말과 글의 뜻)와의 준거 타당도가 .78이며, 재검사 신뢰도는 .87로 보고되었다.

a. 검사도구의 구성

언어표현력 검사는 유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한 장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꾸미도록 구성된 5항목과 4장의 그림을 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를 꾸미도록 구성된 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의 하위영역은 '단어 수, 문장 수, 내용의 일치, 내용의 연계, 창의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b. 검사 방법

언어표현력 검사는 1:1 개별 면접방법으로 검사자가 검사 대상 유아와 마주 앉아 검사 도구의 그림을 한 장씩 보여주며, 각 그림에 따른 유아의 언어표현력을 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야기로 표현하도록 하여 이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에 채점표에 점수를 기록하였다.

c. 채점방법

그림 보고 이야기 꾸미기는 다섯 장면의 그림을 각각 보여주고 유아의 반응을 단어 수, 문장 수, 내용의 일치, 내용의 연계, 창의적 표현으로 분석하여 채점한다. 각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단어 수와 문장 수는 나타나는 횟수에 따라 각 1점씩이고, 내용의 일치는 14점, 내용의 연계는 10점, 창의적 표현은 10점이며, 유아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거나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는 0점으로 채점한다. 따라서 그림 보고 이야기 꾸미기에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총점은 34점과 단어 수와 문장 수를 채점하여 종합한 점수이다.

그림 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는 네 장으로 이루어진 두 이야기 장면의 그림을 통해 유아의 반응을 단어 수, 문장 수, 내용의 일치, 내용의 연계, 창의적 표현으로 분석하여 채점한다. 각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단어 수와 문장 수는 나타나는 횟수에 따라 각 1점씩이고, 내용의 일치는 8점, 내용의 연계는 4점, 창의적 표현은 4점이며 유아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경우는 0점으로 채점한다. 따라서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에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총점은 16점과 단어 수와 문장 수를 채점하여 종합한 점수이다.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채점 기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언어표현력 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언어표현력 검사 도구 하위영역 채점 기준

<table>
<tr><th></th><th>그림 보고 이야기 꾸미기</th><th>그림 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th></tr>
<tr><td>단어 수</td><td colspan="2">문법상 의미를 가진 단어의 수를 세어 각 장면의 단어 수를 종합하여 채점한다. 단어가 중복되더라도 문장 내에서 의미가 통하는 단어는 단어 수로 세어 산출한다.</td></tr>
<tr><td>문장 수</td><td colspan="2">주어와 술어의 기본 구조를 문장으로 보고, 단문인 경우 1개의 문장으로 중문이나 복문인 경우 2개의 문장으로 계산해서 각 장면의 총 문장 수를 산출한다.</td></tr>
<tr><td rowspan="2">내용의 일치</td><td colspan="2">각 장면에 대해 아래의 기준을 제시한 후 유아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태의 가짓수에 따라 1점씩 채점한다.</td></tr>
<tr><td>부엌그림 4가지
빨래하는 날 3가지
식물심기 3가지
공 잡기 2가지
그네 타기 2가지</td><td>하루 일과 이야기 4가지
곰돌이 이야기 4가지</td></tr>
<tr><td rowspan="2">내용의 연계</td><td colspan="2">장면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후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계를 보이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td></tr>
<tr><td colspan="2"><table>
<tr><th>내용의 일치</th><th>연계성</th><th>점수</th></tr>
<tr><td>○</td><td>○</td><td>2점</td></tr>
<tr><td>△</td><td>×</td><td>1점</td></tr>
<tr><td>×</td><td>×</td><td>0점</td></tr>
</table></td></tr>
<tr><td rowspan="2">창의적 표현</td><td colspan="2">각 장면별로 창의적 표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 후 채점한다.</td></tr>
<tr><td colspan="2"><table>
<tr><th>그림에서의 드러나는 정도</th><th>그림 내용과 관련, 확장</th><th>점수</th></tr>
<tr><td>×</td><td>○</td><td>2점</td></tr>
<tr><td>×</td><td>△</td><td>1점</td></tr>
<tr><td>×</td><td>×</td><td>0점</td></tr>
</table></td></tr>
</table>

2. 유아의 또래유능성 검사도구

a. 검사도구의 구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와 이은해(2001)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교사 평정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각 요인별 5문항 씩 총 1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사교성 요인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친사회성 요인은 다른 아동을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성 요인은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또래유능성 척도의 *Cronbach a* 계수는 .88이며, 하위 요인으로 사교성 요인의 *Cronbach a* 계수는 .77, 친사회성 요인의 *Cronbach a* 계수는 .83, 주도성의 *Cronbach a* 계수는 .89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각 하위요인의 개념과 해당 문항은 <표 3>과 같고 또래유능성 척도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표 3> 또래유능성 하위 영역 별 문항

하위요인	개 념	문항번호	*Cronbach a*
사교성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	3, 6, 9, 12, 15	.77
친사회성	다른 아동을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2, 5, 8, 11, 14	.83
주도성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	1, 4, 7, 10, 13	.89
또래유능성 전체			.8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검사 방법

또래유능성 검사는 각 집단의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또래유능성 행동을 관찰하고 각 문항의 행동요인에 따라 그 결과를 5점 기술 평정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유아의 또래유능성 관찰 척도의 예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또래유능성 행동 관찰 평정 척도의 예

번호	내 용	전 혀 그렇지 않다.	별 로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조 금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나 활동을 주도한다					
2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3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4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5	다른 아이와 갈등을 경험할 때 타협을 잘한다.					

c. 채점방법

각 척도는 1단계 1점, 2단계 2점, 3단계 3점, 4단계 4점, 5단계 5점을 주어 평정된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점수를 산출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점수의 합이 클수록 해당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 한 명이 얻을 수 있는 또래유능성 점수의 범위는 15-75점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연구절차

1.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설계이다. D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표 5>와 제시하였다.

<표 5> 실험설계

실험집단	O_1	X_1	O_3
비교집단	O_2	Y_1	O_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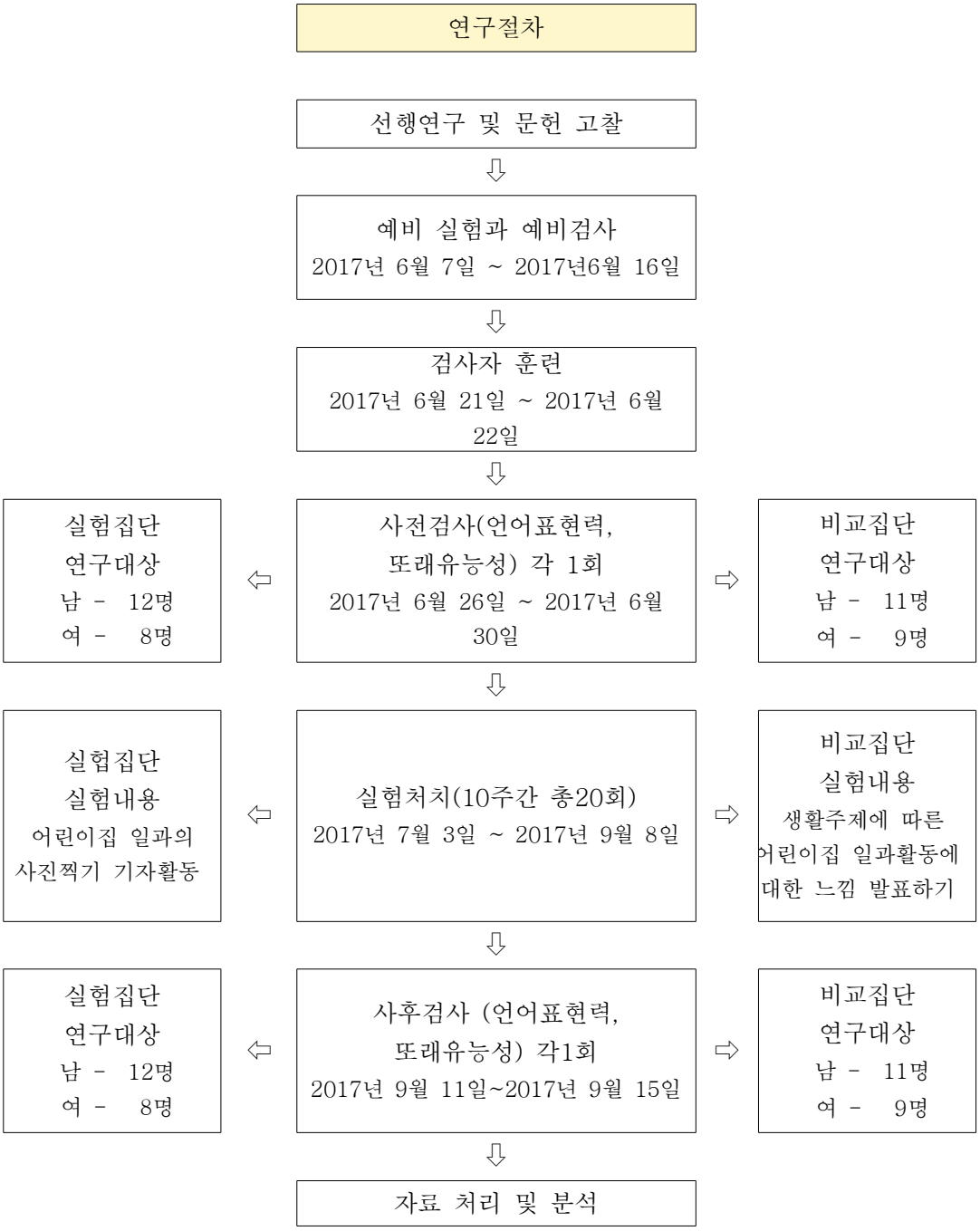
O_1 , O_2 : 사전검사(언어표현력, 또래유능성),
X_1 :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하기
Y_1 : 생활주제에 따른 어린이집 일과활동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기,
O_3 , O_4 : 사후검사(언어표현력, 또래유능성)

실험집단은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실시하고 비교집단은 생활주제에 따른 어린이집 일과활동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 간에 실험 처치 전-후의 언어표현력 검사와 또래유능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예비실험과 예비검사, 검사자 훈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자료 처리 및 분석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 연구절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예비 검사

본 연구는 실험을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되는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 검사 도구의 적절성과 소요되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유사한 환경의 L어린이집 만 5세 유아 6명(남 3명, 여 3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실험을 실시하기 전, 연구에 사용될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 검사 도구에 대한 예비 검사는 2017년 6월 7일과 8일에 이루어졌다.

언어표현력 검사는 유아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하였으며, 예비검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질문유형을 정리 하였다. 검사의 소요시간은 유아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으나 10~15분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비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한 유아들과 검사하지 않은 유아들이 검사내용을 서로 소통하여 검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한 아이들과 검사하지 않은 아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대기하도록 하였다. 추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래유능성 검사는 일과 후 담임교사가 유아교육기관의 일과에서 유아를 관찰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유아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점은 발견되지 않아 검사도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의 적절성 여부와 소요시간,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L어린이집 만 5세 유아 6명(남 3명, 여 3명)을 대상으로 첫째 날, 사진찍기 활동과 사진 선정하기를 둘째 날에는 기사작성과 기자발표 활동으로 2017년 6월 12일~6월 16일까지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진을 찍을 때 사진찍는 유아가 사진을 찍는다고 알려주고 찍어 포즈를 취하고 찍는 사진이 있어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자연스러운 일과 모습이 찍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기사 제목과 모둠 명을 지어보는 활동의 경우 처음 교사가 제시한 제목과 비슷하게 짓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진 찍는 유아에게 자연스러운 일과 모습이 찍히도록 활동에 방해되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로 사진을 찍도록 유도하였고, 모둠 활동 시간에는 교사가 제목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유아들이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3. 검사자 훈련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 검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각반 담임교사가 실시하였고, 교사훈련은 2017년 6월 21일과 6월 22일 이틀 동안 실시하였다. 검사자 훈련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실험 처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교육하였으며, 전체적인 수업 방향 및 교사의 역할, 유아와 상호작용 방법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의 언어표현력 검사 척도와 또래유능성 검사 척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검사항목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검사문항을 함께 검토하였다. 각반 담임교사가 1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척도검사를 실시해 보면서 발견한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검사문항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해 연구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며, 평가과정의 문제점 및 문항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파악하여 검사자에 따른 차이를 극소화하였다. 검사자 훈련에서 검사 대상이었던 유아 1명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검사자는 검사지를 제시하는 순서와 구두문항 질문하는 방법, 소요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직접 시연해 보면서 익히도록 하여 훈련하였다. 또한, 사진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아들의 안전 사항과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유아들 간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방법도 함께 훈련하였다. 특히, 담임교사 2명에 대한 훈련과정에서 같은 유아를 두고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두 사람의 점수가 일관성이 있도록 하는 평정자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치도 (inter-rater reliability)를 수행하였다.

4. 사전 검사

사전검사는 실험집단 유아 20명과 비교집단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의 순서는 유아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언어표현력 검사를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언어표현력 검사는 유아에게 그림을 한 장씩 보여주고 유아가 그림을 보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유아가 대답을 어려워 할 경우 다른 그림을 먼저 제시한 후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경우 다음 그림으로 넘어갔다. 검사 시간은 개인차가 있었지만 언어표현력 검사는 10분~15분가량 소요되었다. 또래유능성 검사는 담임교사가 유아의 어린이집 하루 일과 모습과 평소 관찰했던 모습을 토대로 또래유능성 검사 도구의 문항 중 유아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여 유아의 행동을 검사지의 5점 척도에 따라 체크하였다.

5. 실험 처치

a. 실험처치 기간 및 일과 운영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처치는 2017년 7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10주간 1주에 2차시씩 총 20회에 걸쳐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실시하였다. 1차시에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활동과 그날 찍은 전체 사진 감상하기, 2차시에는 모둠별 대표 사진 선정하기와 기사작성하기, 그리고 기자가 되어 발표하기를 실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실험집단의 유아 20명은 담임교사가 유아의 성별, 성향을 고려하여 A모둠, B모둠, C모둠, D모둠, E모둠의 다섯 모둠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은 실험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대집단 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1차시의 사진찍기 활동은 그날의 사진기자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일과 중 찍고 싶은 대상이나 활동이 있을 때 편안하게 찍도록 하였다. 또한, 카메라 휴대의 편리를 위하여 목에 거는 카메라 보관함을 만들어 쉽게 꺼내서 바로 촬영할 수 있게 하였고, 사진을 찍는 기자역할을 담당하는 유아들도 어린이집 일과의 참여에 방해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목에 걸어 사용하게 해 주었다. 실험처치 기간 동안의 일과 운영은 <표 6>과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일과 운영

시간	실험 집단	비교 집단
7:30 ~ 9:00	등원 및 계획하기	
9:00 ~ 9:50	자유선택활동	
9:50 ~ 10:00	정리정돈 및 자유선택 평가	
10:00 ~ 10:30	손 씻기 및 오전 간식	
10:30 ~ 11:30	대 · 소그룹 활동 (이야기나누기, 동화,새노래)	
11:30 ~ 12:30	실외 바깥놀이 활동	
12:30 ~ 13:10	점심 및 휴식	
13:10 ~ 14:10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하기	어린이집 일과의 활동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기
14:10 ~ 14:30	정리정돈 및 1차 귀가지도	
14:30 ~ 15:00	특별 활동	
15:00 ~ 15:30	손 씻기 및 오후 간식	
15:30 ~ 16:10	소그룹 활동(특성화 수업)	
16:10 ~ 17:10	자유선택활동	
17:10 ~ 18:30	평가 및 귀가지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실험처치 내용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1주 2회 차씩 10주 동안 총 20회에 걸쳐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은 도입, 전개, 마무리(평가 및 감상)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입은 유아들에게 사진찍기 기자활동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단계로 카메라의 모양과 찍는 방법 등 카메라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자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나누기를 실시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하였다.

전개 과정은 1단계 사진촬영하기, 2단계 찍은 활동사진 감상하기로 1회 차에 실시하고, 3단계 모둠별 대표 사진 선정하기 4단계 기사 작성하기 5단계 기자되어 발표하기를 2회 차에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 사진촬영하기 단계에서는 사진 촬영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내용과 무엇을 촬영해야 하는지, 촬영 시 지켜야 할 약속 등을 이야기 나누기 한다. 그리고 모둠이름과 모둠별로 사진촬영, 기자발표, 기사작성, 모둠진행 등 유아의 역할을 정한 다음 사진촬영 기자로 역할을 맡은 유아는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모둠편성은 1회 차 1단계에서 한번만 실시하고 모둠별 담당 역할과 카메라 사용법, 촬영 시 지켜야할 약속 등은 매 주 1단계에서 실시하였다. 사진 촬영의 주제는 유아의 다양한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어린이집 생활주제와 상관없이 어린이집 일과 중 자유롭게 찍도록 하였다. 2단계 찍은 활동사진 감상하기는 그날 촬영한 전체사진을 대집단으로 모여 TV모니터를 통해 감상한 후 촬영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고 마무리한다. 그 다음 3단계부터는 2차시에 이루어지는데 모둠별 대표 사진 선정하기로 1회 차에 찍은 전체 사진중 기사화 할 사진을 모둠에서 토의하여 선정한다. 사진 선정은 모둠별 유아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조율하여 결정한다. 이때 교사는 개입하지 않으며 유아가 찍은 사진 중 기사화 하고자 하는 사진 5장을 결정해서 사용하는데, 실제 기사에 사용할 사진의 장수는 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둠에서 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4단계 기사 작성하기는 선정된 사진으로 기사 제목을 토의하여 결정하고 미리 나누어준 4절 색도화지에 사진을 붙이고 기사제목과 기사내용을 작성한 후 기사문을 완성한다. 전개의 마지막 단계인 5단계 기자가 되어 발표하기에서는 발표기자가 모둠 전체 유아와 함께 완성된 기사문을 가지고 나와서 모둠을 소개 한 다음 기사내용을 읽고 발표한다. 그리고 모둠 유아는 기자 발표가 끝난 다음 기사에 대해 추가설명이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였다.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 찍기 기자활동의 전개과정은 [그림 2]와 같다

끝으로 마무리는 활동평가와 감상하기이다.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하면서 아쉬웠거나 즐거웠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 해 보고 완성된 기사문을 전시하여,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서 자유롭게 감상하도록 한다.

사진 촬영하기	•사진 촬영에 대한 일과 이야기 나누기 •모 둠 구성과 역할 토의하기 •사진 촬영하기
사진 감상하기	•찍은 활동사진감상하기 •카메라 정리 및 1회 차 평가하기
기사화 할 대표사진 선정하기	•모 둠 별 대표 사진 선정하기
기사 작성하기	•모 둠 별 선정된 사진으로 기사작성하기
기자 되어 발표하기	•모 둠 별 기자 되어 발표하기 •기사에 대한 추가발표하기

[그림 2]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의 전개과정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교수학습단계은 [그림 3]과 같으며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 찍기 기자활동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실험처치 활동 비교는 <표 7>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단계	교수·학습모형	활동내용	교수전략
준비	·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 찍기 기자 활동 계획안	· 어린이집 일과 활동	· 사진찍기 기자활동 알기 · 유아 발달수준에 맞는 활동
도입	· 카메라 소개·관심갖기 · 사진 찍기와 기자 활동에 관한 흥미와 경험 나누기 · 활동 방법 안내하기	· 동기 유발을 위한 유아의 사진 찍기와 기자 활동의 경험 나누기 · 카메라 사용 방법 및 지켜야 할 규칙 알기	· 사진찍기와 기자에 대해 알아보기 · 활동규칙 이해하고 알기 · 내용 이해를 위한 발문하기 · 카메라 사용법 이해하기
전개	1단계(1회차 활동) · 사진촬영에 대한 일과 이야기 나누기 · 모둠편성과 역할 정하기 · 사진 촬영하기	· 모둠 명, 모둠역할 정하기 · 카메라에 담을 내용 탐색하기 · 사진 촬영하기	· 모둠별 인원편성하기 · 카메라 촬영방법 적절한 피드백하기
	2단계(1회차 활동) · 사진 기자가 찍은 전체 활동사진 감상하기 · 카메라 정리와 1회차 활동평가하기	· 대집단으로 모여 찍은 전체 사진을 감상하기 · 카메라 정리와 촬영 활동의 이야기나누기	· 촬영된 전체 사진감상하도록 TV모니터에 연결하여 주기 · 전체사진 감상 분위기 조성
	3단계(2회차 활동) · 기사화 할 대표사진 선정하기	· 모둠별 토의 후 기사화 할 사진선정 하기	· 전체사진 인쇄 후 토의로 사진선정 유도하기 · 모둠별 토의활동 격려하기
	4단계(2회차 활동) · 기사작성 및 기사문 완성하기	· 기사 작성 내용과 기사 꾸미기 토의 활동 하고 기사문 완성하기	· 기사문 작성에 필요한 재료 구성과 자유로운 수업환경으로 격려하기 · 다양한 의견 유도하기
	5단계(2회차 활동) · 기자되어 발표하기 · 기사에 대한 추가 발표하기	· 바른 자세로 기자되어 발표하기 · 기사에 대한 추가발표나 사진소개하기 · 경청과 질문하기	· 바른 자세로 발표하도록 격려와 분위기 조성 · 모둠별 유아들이 고루 발표하도록 격려하기 · 추가발표와 질문하도록 유도하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무리	⇩ · 재미있거나 아쉬운 점 이야기 하기 · 작성된 기사감상하기	⇩ · 완성된 기사문을 감상하고 칭찬과 격려하기 · 활동에 대한 평가하기	⇩ · 기사문 감상과 활동에 대한 생각과 느낌 나누기

<그림 3>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 교수·학습 단계

<표 7>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활동비교

집단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연구대상			20명(남 12명, 여 8명)	20명(남 11명, 여9명)
실험처치기간			주 1회 10주(총 20회 차)	주 1회 10주 (총20회 차)
활동형태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하기	어린이집 일과의 활동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기
절차			활동 단계 및 내용	
		단계	내용	내용
준비			·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 활동 계획안 추출 ·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 기사작성 재료 선정	· 어린이집 일과의 발표하기 계획
도입			· 사진찍기 기자활동 소개하기 · 카메라 소개하기 · 사진찍기 경험과 기자활동의 경험 나누기	· 어린이집 일과의 활동에 대한 느낌 발표에 대해 소개하기 · 일과 발표 관련 자세 및 생활 주제에 대한 경험나누기
전개	1회차	1단계	· 사진촬영에 대한 일과 이야기 나누기 · 모둠편성과 역할 토의하기 · 사진 촬영하기	· 어린이집 일과 중 즐거웠던 활동 발표하기 · 어린이집 일과의 활동에 대한 느낌 발표하기
		2단계	· 찍은 활동사진 감상하기 · 카메라 정리정돈과 1회차 활동평가	
	2회차	3단계	· 모둠별 기사화 할 대표 사진선정하기	· 어린이집 일과 중 즐거웠던 활동 발표하기 · 어린이집 일과의 활동에 대한 느낌 발표하기
		4단계	· 선정된 사진으로 모둠별 기사문 작성 및 완성하기	
		5단계	· 기자가 되어 발표하기 · 기사에 대해 추가 발표하기	
마무리			· 재미있거나 아쉬운 점 이야기하기 · 기사화된 기사문 감상하기	· 발표자에게 질문하기 · 활동 평가하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실험집단의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의 활동과정은 전문가와 현장교사의 자문을 얻어 각 모둠별 활동을 실시하여 모든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 찍기 기자활동 단계에 따른 실험집단의 활동 계획안 예시는 <표 8>이고, 어린이집 일과를 사진찍은 후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사내용은 <표 9>와 같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유아들이 어린이집 일과를 사진으로 찍으면서 다른 유아들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고 토의 활동으로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서로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안하고 도와면서 기사문을 완성해 나가된다. 그리고 완성된 기사문을 가지고 기자가 되어 발표하는 과정은 단어와 문장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활동으로 계획하였다. 실험집단은 초기에는 토의를 거쳐 자신의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토의 활동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대부분 교사 주도적 학습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모둠별 토의 과정에서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아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고 따랐으며, 또래와 충분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 주었고, 유아들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격려도 해 주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8> 실험집단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 계획안(1차시)

생활주제	신나는 여름	일정	2017. 7. 3.
활동 명	사랑하는 마음	연령	만 5세
활동목표	- 카메라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본다. - 친구들과 고루 어울리며 여러 친구들의 활동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본다. - 활동사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유아들이 스스로 찍은 사진을 감상 해본다.		
활동 재료	카메라5대, 4절색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크레파스, 연필, 지우개, 가위, 풀		

활동 절차		활동 내용 및 방법
도입	▶동기유발을 위한이야기 나누기	① 카메라를 직접 보면서 카메라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찍어 본적이 있나요? – 무엇을 찍어 보았나요? ② 카메라의 기능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준다. -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장난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③ 촬영 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사진 찍을 때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개과정	<1 단계> ▶모둠이름과 역할 결정 하기 ▶사진 촬영 하기 <2 단계> ▶찍은 전체 사진 감상 하기	④ 각자 모둠으로 나누어 앉게 한다. - 모둠별로 앉아 모둠에서 모둠 명을 하나씩 만들어 볼까? - 왜 그것으로 모둠 명을 만들었나요? - 모둠 명을 만들었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모둠 명을 소개 해 줄 수 있겠니? ⑤ 모둠에서 맡을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의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 각각 모둠에서 맡을 역할을 정했으면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니? ⑥ 사진기자는 활동하면서 다른 유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한다. –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탐색한다. – 사진 촬영기자는 각자의 카메라로 찍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찍도록 한다. – 생각한 것을 사진으로 찍었나요? ⑦ 대그룹으로 모여 앉아 찍은 전체 사진을 TV모니터에 연결하여 하나씩 감상한다. - 옆에 앉은 친구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진을 감상한다. -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다른 친구들이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 본다. - 모둠 친구들이 찍은 사진 속에 무엇이 찍혔는지 관찰해 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나요? -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나요? - 어떤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마무리	▶카메라정리 및 평가하기	⑧ 다음에 사용할 친구를 위하여 사용한 카메라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한 사진찍기 활동이 즐거웠나요? - 카메라는 소중히 다루었나요? ⑨ 사진 촬영하기 활동에 대해 느낌을 서로 이야기 하고 칭찬과 격려 한다 - 모둠 친구들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 해 주겠니? - 오늘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보니 어떤가요? - 내가 찍으려고 한 사진들이 잘 찍혀졌나요?

활동사진		
	모둠에서 촬영기자가 된 유아의 사진촬영 활동 모습과 전체 사진 감상 모습	모둠에서 유아가 직접 찍은 사진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실험집단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 계획안(2차시)

생활주제	신나는 여름	일정	2017. 7. 4.
활동 명	사랑하는 마음	연령	만 5세
활동목표	-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친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본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 - 기사작성의 순서대로 규칙을 스스로 지키며 즐겁게 활동한다.		
활동 재료	카메라5대, A4용지, 4절색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크레파스, 연필, 지우개, 가위, 풀		

활동 절차		활동 내용 및 방법
도입	▶동기유발을 위한이야기 나누기	① 지난 차시에 사진찍기 활동에 대한 경험을 듣고 이야기 나눈다. –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진들을 찍었나요? – 사진 찍기가 즐거웠나요? – 사진찍기가 어렵지 않았나요? – 1차시에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감상했는데 떠오르나요?
전개과정	<3 단계> ▶기사사진 선정하기 <4 단계> ▶기사작성 하기	② 모둠 별로 전체 사진을 인쇄하여 나눠주고 기사에 사용할 사진을 고르도록 한다. - 찍은 사진 중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 사용할 사진 5장을 서로 토의하여 골라 보겠니? - 사진을 선정할 때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찍은 사진 중에 기사에 사용할 사진은 어떤 사진으로 하면 좋을까? ③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어떻게 기사를 쓸까? ④ 기사에 어떤 제목을 붙여주면 좋을까? 서로 이야기해서 정해 볼까? - 사진을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 - 무엇을 하는 사진일까? - 사진에 어울리는 기사 글은 무엇일까? - 선정된 제목과 관련하여 기사를 작성해 본다.
	<5 단계> ▶기자되어 발표하기	⑦ 발표할 기자는 나와서 같이 담당한 모둠원들의 역할을 소개한다. - 아이스크림 모둠은 함께 작성한 기사를 가지고 앞으로 나와 발표하도록 하는데 오늘 발표 기자는 누구인가요? ⑧ 작성된 기사문을 보고 기자가 되어 기사를 발표한다, - 아이스크림 모둠은 기사 제목이 '하트'인가요? - 생일파티 사진도 있고 친구 사진도 있는데 기사 내용을 말해 주겠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추가발표 하기	- '모두 같이 사랑해요'로 발표 잘 해 주었어요. 친구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잘 들어 보았나요? - 친구들도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있나요? 친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⑨ 발표할 때 바른 자세로 발표하도록 한다. ⑩ 기사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소개 하도록 한다. - 기사에 대해 더 설명하고 싶은 사람이나 소개하고 싶은 사진이 더 있나요? - 발표한 기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나 묻고 싶은 것이 있나요?
마무리	▶활동평가와 전시관람	⑪ 정리 후 모둠 원들이 모여 만든 기사문을 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며 모둠원들과 서로 보면서 '사랑해' 라고 말해준다. - 오늘 친구들과 모둠활동이 즐거웠나요? - 모둠에서 만들려고 한 기사가 잘 표현되었나요? - 다른 모둠 친구들의 기사는 어떤 내용의 기사인가요? ⑫ 모둠에서 발표한 기사문을 교실에 전시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감상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 준다
활동 사진		
	각 모둠에서 완성된 기사문	모둠에서 사진선정과 기자되어 발표하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9> 실험집단 유아들이 스스로 만든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의 내용

주	회차	생활주제	기사명	기사내용
1	1 차시	신나는 여름	재미 있어요.	장구가 재미있고 정리를 잘해요. 영어 할 때도 집에 갈 때도 재미있어요.
			예쁜 내 모습	정리를 잘하는 모습, 간식 먹는 모습, 책보고 있는 모습이 예뻐요
			재미있게 놀아요.	소연이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인철이하고 지희가 보드게임을 해요. 인철이랑 지은이가 자동차 놀이를 해요
	2 차시		하트	엄마 선생님 사랑해요. 주희도 사랑해요. 친구들 사랑해요.
			하늘반의 친구들	수진이가 친구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친구들을 찍고 있다. 도인이가 물먹는 모습이고 주안이가 친구 사진 찍는다. 진성이는 엄마놀이 하면서 음식 만들어요.
2	3 차시		하늘반의 자유시간	수인 지연 아린 기주가 끼우기 장난감으로 놀고 있고 지윤 아린이가 음료수 장난감으로 올리기 놀이하고 있다.
			하는 것	놀이터에서 놀아요. 생일파티해요. 영어 수업하는 것
	4 차시		오늘에 간식	맛있는 것 먹고 있는 연주의 모습 나도 골고루 많이 먹어야겠다. 맛있게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잔멸치 채소 죽 재료는 멸치, 쌀, 당근, 양파
			예쁜표정	지윤이 채윤 윤주 수진이가 예쁜 표정으로 사진 찍었다.
			하원이	하균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어요. 아아 라고 계속 소리를 내요.
3	5 차시		신체활동	채윤가 공을 던져서 다시 빼내고 있다. 재미있는 놀이는 아기돼지 놀이하고 공 던지기 놀이 느낀 점은 재미있고 또 하고 싶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	수인이가 손을 씻어요. 화장실에서 세진이가 손 씻어요. 뒤에서 세진이가 기다렸어요.
			즐거운 시간	친구들과 장구 치는 모습이 재밌다. 도진이의 생일 초코 케이크도 먹고 맛있다.
	6 차시		친구는 뭐 할까	지은이가 소꿉놀이를 하고 채연이는 가려고 가방을 매고 있어요 소인이는 블록으로 놀고 있어서 웃고 있어요. 세연이 주원이는 놀아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즐거운 사진들	도진이가 쌍꺼풀이 생겼어요. 바깥놀이 나갔어요.
4	7 차시	자석놀이	자석으로 놀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싫은 것	수인이가 밥을 먹어요. 싫어요. 당근-토끼, 당근-주황-오렌지-둥글다.
		둘이서	소인이랑 주원이랑 놀고 있어요. 숫자판 놀이하고 있어요.
	8 차시	노는 모습	소인이가 엄마놀이 혜원이가 과일을 가방에 담았어요. 가연이가 인형가지고 놀고 있어요.
		자유놀이	희영이 채원이가 고라로 놀고 있어요. 김윤이랑 김세진이랑 비행기로 놀고 있다. 채원이가 시계로 놀고 있다. 김민철이랑 정희진이가 미끄럼틀을 높이 만들고 있다.
5	9 차시	사랑의 스프	내용은 사랑의 스프는 원래 맛있다. 느낀 점은 나누면 행복해요
		길을 만들어요	교통표지판으로 길게 길을 만들고 있어요.
		친구들과 하루	민철이랑 세진이가 놀고 있다. 너무 재미있게 놀았다. 재희가 비행기 모양으로 놀고 블록을 높이 쌓아서 예뻤다. 재진이 채원이 연주가 간식 먹는 모습 맛있게 먹어서 찍었다.
	10 차시	우리 친구들	하윤이가 장난감으로 놀고 도형이가 큐브주사위로 팽이를 만들고 있다 윤이는 자전거그림을 그리고 세진이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자유놀이 시간	소희이가 가방을 들고 엄마놀이를 하고 있어요.
6	11 차시	날리는 놀이	열기구를 동생들에게 날리고 낙하선을 날렸다. 희진이가 비행기를 접고 있다. 열기구 날리는 게 재미있어서 즐거웠다.
		신나는 게임	훌라후프 게임인데 무릎으로 기어서 하는 게임이고 서서하는 게임 이예요. 마법의 단추에서 게임은 신기 했어요
	12 차시	교통기관	버스가 갈려고 하는 것, 자동차가 멈춰있는 것. 자동차가 가고 있는 것. 버스가 멈춰 있다. 친구들이 자동차에 색칠하고 있다.
		귀여운 시간	동생 반 하루가 비눗방울로 놀고 있어요. 세진이가 보고 있어요. 하루가 귀여워요.
		로켓아 날아라.	세진이랑 성진이랑 재원이랑 로켓으로 놀고 있어요. 멀리 날아가요
7	13 차시	용진 수련원	줄을 서요, 차에 탔어요. 도자기 만들어요. 밥 먹어요. 공룡화석 사진 찍기 해요.

교통기관 과 교통생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견학 가요	견학을 가려고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려요. 견학을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14 차시		견학놀이	연주 엄마가 싸주신걸 잘 먹고 있다. 다른 어린이집 먹는 거를 인주가 보고 있다.
		교통 표지판	조현주가 운전을 하고 있다. 초록불이어서 하주원이 운전을 하고 있다. 도진이랑 같이 하주원이 운전하고 도진이가 표지판을 들고 있다.
		견학에 했던 일	첫 번째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다음에 공룡보고 공룡 만들었어요.
15 차시		밖의교통 표지판	가온이랑 형진이가 표지판하는 모습입니다. 신호등을 들고 있어서 멋지다. 표지판을 들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교통 표지판	내가 교통표지판을 들고 있어요. 교통표지판 이름은 일방통행, 일방통행하면 생각나는 것 미끄럼, 넘어지다 입니다.
8		바깥놀이	윤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고 숨바꼭질하려고 가위바위 보를 하고 있다. 숨바꼭질 현주가 술래다. 하주원이 뛰어가고 있다.
16 차시		모두 하니까	신호등 멋진 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했어요.
		교통기관	성진이가 교통표지판을 들고 있다. 들고 있는 게 멋있어서 찍었다. 재원이랑 형진이랑 주원이랑 표지판 들고 있는 모습이다.
17 차시		체험학습 가는 날	어제 견학 갈 때 버스를 탄 민철이의 모습 이예요. 좋아요.
		공원에서 했던 일	친구들이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진이가 뛰는 모습입니다. 꽃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9		밖과 안에	미끄럼틀은 밖에서 하게요, 꽃도 밖에 있어요. 안에서 오카리나 해요
18 차시		바깥놀이 갔을 때	공원에 큰 별이 바닥에 있어요. 꽃도 있어요. 어린이집 앞에서도 놀았어요.
		오카리나 시간	오카리나시간 이야기 오카리나 할 때 똑같은 거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걸 배웠다.
10 19 차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	일자 블럭놀이	세준이가 일자 블록으로 말처럼 생긴 것을 만들고 지원이는 자동차를 만들고 채유는 집을 만들었다. 도인이는 잘 모르겠다.
		어제 하루	친구들이 음식을 보고 있고 윤이랑 재철이가 퍼즐을 맞추고 있다. 안전교육 때 엘리베이터에 대해 교육하는 모습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 차시		퍼즐놀이	이주언이 퍼즐을 맞추고 있다 유수인이 퍼즐 하는 거를 소원이가 퍼즐놀이를 보고 있다.
		친구모습	성진이가 의자에 앉아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주말지낸 이야기	성진이가 할아버지네 가서 생일도 했습니다. 친구가 주말에 지낸 이야기 하고 있어요.

6. 사후 검사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 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후 검사는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검사는 사전 검사와 동일하게 실험집단 유아 20명과 비교집단 유아 20명에 대해 각 담임교사가 일대일 면접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언어표현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래유능성 검사는 유아의 어린이집 하루 일과 모습과 평소 관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일과 후에 검사를 진행하였다.

D. 자료분석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 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실험 전에 존재할 수 있는 집단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검사 점수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유아들의 사진찍기 기자활동 장면을 관찰하고 녹화하기도 하였으며, 교사의 저널등을 작성하여 이를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A.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언어표현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단어 수	실험집단	20	3.00	.42	3.94	1.12
	비교집단	20	3.08	1.10	3.14	.92
문장 수	실험집단	20	2.42	.74	3.21	.95
	비교집단	20	2.58	.91	2.74	.76
내용일치	실험집단	20	1.33	.40	2.22	.64
	비교집단	20	1.17	.66	1.52	.39
내용연계	실험집단	20	.55	.44	1.34	.64
	비교집단	20	.57	.37	.97	.38
창의표현	실험집단	20	.53	.37	1.19	.81
	비교집단	20	.56	.34	.85	.68
언어표현력 (전 체)	실험집단	20	1.57	.21	2.38	.71
	비교집단	20	1.59	.52	1.84	.39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언어표현력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1.57점(*SD*=.21),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38점(*SD*=.71)로 .81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1.59(*SD*=.52), 사후검사 평균은 1.84점(*SD*=.39)으로 .25점만이 향상되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단어 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3.00점(*SD*=.42),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3.94점(*SD*=1.12)로 .94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3.08(*SD*=1.10), 사후검사 평균은 3.14점(*SD*=.92)으로 .6점만이 향상되었다. 문장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2.42점(*SD*=.74),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3.21점(*SD*=.95)로 .79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2.58(*SD*=.91), 사후검사 평균은 2.74점(*SD*=.76)으로 .16점만이 향상되었다. 내용일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1.33점(*SD*=.40),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2.22점(*SD*=.64)로 .89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1.17(*SD*=.66), 사후검사 평균은 1.52점(*SD*=.39)으로 .35점만이 향상되었다. 내용연계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55점(*SD*=.44),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4점(*SD*=.64)로 .79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57(*SD*=.37), 사후검사 평균은 .97점(*SD*=.38)으로 .40점만이 향상되었다. 창의표현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53점(*SD*=.37),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19점(*SD*=.81)로 .66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56(*SD*=.34), 사후검사 평균은 .85점(*SD*=.68)으로 .29점만이 향상되었다. 즉,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언어표현력 및 하위영역인 단어 수, 문장 수, 내용일치, 내용연계, 창의표현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이 언어표현력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41, p<.001). 또한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창의표현을 제외한 단어 수(F=9.09, p<.01), 문장 수(F=4.63, p<.05), 내용일치(F=25.05, p<.01), 내용연계(F=8.25, p<.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단어 수, 문장 수, 내용일치, 내용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언어표현력에 대한 공분산분석

구 분	변량원	*SS*	*dF*	*MS*	*F*
단어 수	공변인	3.33	1.00	3.33	3.30
	집단	9.15	1.00	9.15	9.09**
	오차	51.33	51.00	1.01	
	합계	738.69	40.00		
	*R*제곱=.189	수정된 *R*제곱=.157			
문장 수	공변인	1.44	1.00	1.44	1.98
	집단	3.36	1.00	3.36	4.63*
	오차	37.06	51.00	.73	
	합계	519.71	40.00		
	*R*제곱=.106	수정된 *R*제곱=.071			
내용일치	공변인	.43	1.00	.43	1.55
	집단	6.96	1.00	6.96	25.05**
	오차	14.18	51.00	.28	
	합계	209.59	40.00		
	*R*제곱=.332	수정된 *R*제곱=.305			
내용연계	공변인	2.45	1.00	2.45	10.45**
	집단	1.93	1.00	1.93	8.25**
	오차	11.96	51.00	.23	
	합계	88.09	40.00		
	*R*제곱=.265	수정된 *R*제곱=.236			
창의표현	공변인	2.95	1.00	2.95	5.82*
	집단	1.77	1.00	1.77	3.50
	오차	25.84	51.00	.51	
	합계	86.43	40.00		
	*R*제곱=.150	수정된 *R*제곱=.117			
언어표현력 (전 체)	공변인	.48	1.00	.48	1.49
	집단	3.99	1.00	3.99	12.41**
	오차	16.41	51.00	.32	
	합계	261.46	40.00		
	*R*제곱=.211	수정된 *R*제곱=.180			

*p<.05, **p<.0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또래유능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주도성	실험집단	20	2.29	.81	2.87	.74
	비교집단	20	2.34	.87	2.53	.53
친사회성	실험집단	20	2.29	.74	2.83	.73
	비교집단	20	2.13	.79	2.39	.52
사교성	실험집단	20	2.26	.95	3.04	.83
	비교집단	20	2.29	.81	2.41	.57
또래유능성 (전 체)	실험집단	20	2.28	.79	2.91	.74
	비교집단	20	2.25	.74	2.45	.50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또래유능성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2.28점(*SD*=.79),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2.91점(*SD*=.74)로 .63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2.25(*SD*=.74), 사후검사 평균은 2.45점(*SD*=.50)으로 .20점만이 향상되었다.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주도성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2.29점(*SD*=.81),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2.87점(*SD*=.87)로 .58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2.34(*SD*=.87), 사후검사 평균은 2.53점(*SD*=.53)으로 .19점만이 향상되었다. 친사회성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2.29점(*SD*=.74),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2.83점(*SD*=.73)로 .54점이 향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2.13(*SD*=.79), 사후검사 평균은 2.39점(*SD*=.52)으로 .26점만이 향상되었다. 사교성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2.26점(*SD*=.95),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3.04점(*SD*=.83)로 .78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2.29(*SD*=.81), 사후검사 평균은 2.41점(*SD*=.57)으로 .12점만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이 또래유능성(F=27.26, p<.001) 및 하위영역인 주도성(F=9.05, p<.05), 친사회성(F=10.87, p<.01), 사교성(F=43.06, p<.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3> 또래유능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구 분	변량원	*SS*	*dF*	*MS*	*F*
주도성	공변인	11.54	1.00	15.54	59.00***
	집단	1.77	1.00	1.77	9.05**
	오차	9.98	51.00	.20	
	합계	416.68	40.00		
	*R*제곱=.567	수정된 *R*제곱=.550			
친사회성	공변인	14.17	1.00	14.17	105.05***
	집단	1.47	1.00	1.47	10.87**
	오차	6.88	51.00	.13	
	합계	391.80	40.00		
	*R*제곱=.709	수정된 *R*제곱=.697			
사교성	공변인	20.03	1.00	20.03	154.53***
	집단	5.58	1.00	5.58	43.06**
	오차	6.61	51.00	.13	
	합계	432.12	40.00		
	*R*제곱=.793	수정된 *R*제곱=.784			
또래유능성 (전 체)	공변인	15.99	1.00	15.99	162.17***
	집단	2.69	1.00	2.69	27.26***
	오차	5.03	51.00	.10	
	합계	411.49	40.00		
	*R*제곱=.790	수정된 *R*제곱=.782			

**$p<.01$, ***$p<.00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논의 및 제언

A.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교육적 효과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문제의 검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 유아들의 언어표현력이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통해 실험집단 유아들의 언어표현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들이 사진을 가지고 개별 및 소집단 토의 활동과 대집단 평가활동을 통해 다양한 반성적 사고과정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이나 의견을 서로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는 언어활동을 가짐으로써, 유아의 어휘와 언어표현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이수영, 2012)와 전이시간을 활용한 말놀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언어표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연구(유지현, 이승연, 2017)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그림책 속에 있는 그림들에 관하여 또래들이 서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단어가 많을수록 풍부한 표현이 이루어져 언어 표현력이 향상되었다는 염연정(2009)의 연구, 명화감상을 통한 언어활동에서 한 작품에 대해 유아들은 각자의 생각과 느낌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 다양한 표현의 단어들과 문장들이 사용되며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한 또래의 설명을 들으면서, 폭넓은 언어표현 방법을 익히게 되어 언어표현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이윤영, 이문옥, 2010)와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유아와 교사가 일대일 대화를 나누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유아가 찍은 사진으로 나레이션 활동을 하고 난 후 언어표현력이 향상되었다(Neman, Copple., Bredekamp, 2005)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이 '오늘의 간식' 기사를 발표할 때 유아가 간식을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 할 때 교사가 간식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등을 발문하면 사진을 보고 재료들을 떠올리면서 간식 이름과 잣, 멸치, 당근, 양파 등과 같이 재료를 하나씩 이야기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언어 표현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유놀이'에서는 기자가 '△△이가 □□이하고 블록으로 미끄럼틀을 만들었어요.' 라고 발표를 하자 △△이가 '블록으로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어요. 그네는 없고 다음에 만들 거예요.' 라고 사진 속 주인공인 △△이가 추가로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문장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문장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진찍기 기자활동 과정은 유아들에게 친숙한 어린이집 일과와 관련되어 있기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를 하면서 또래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찰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유아들이 소그룹별 기사작성 활동을 할 때는 기사화할 사진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활발한 상호작용과 언어표현이 이루어지고, 기자가 되어 발표 할 때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유아들이 처음 말할 때 보다는 더 긴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좋은 언어적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언어표현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언어표현력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단어 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타낸 결과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단어 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언어적 경험과 탄탄한 구성의 스토리가 유아들에게 수용언어가 되어 사고를 촉진시켜 단어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단어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오상원, 2012)와 눈으로 직접 구체물을 보고 느끼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에 대한 개념 발달과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유아들에게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여 단어 수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연구결과(최현정, 2010)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날리는 놀이"에서는 낙하산을 높은 곳에서 날리는 사진으로 기사를 발표할 때 다른 유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질문하자 기자가 된 유아는 차분하게 '비닐에 네임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줄을 실로 매달고 색 블럭으로 떨어질 수 있게 했다'고 설명을 차분하게 해 나갔다. 유아들은 일과 진행 중 했던 일이지만 다시 새로운 단어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유아를 보면서 표현하는 방법을 모델링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갈 수 있는 단어에 대해 다른 유아로부터 설명을 들음으로 해서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유아에게 친숙한 환경인 어린이집 일과를 사진으로 찍고 사진 속 인물과 배경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평소 말하는 것보다 스토리 구성에서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단어 수가 향상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장 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문장 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는 정윤희(2015)의 사진찍기를 통한 쓰기활동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조직화하고 사진이 사건의 한 단면을 표현한 것이지만 시간적, 맥락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풍부한 개인적 내러티브를 산출할 수 있었기에 문장 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표지판"으로 기자발표를 할 때 일방통행 표지판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발표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안돼요.' 'CCTV가 있어서 경찰차가 찍어요.' '길거리 가로등에 있어요.' '위반하면 안돼요.' 등으로 유아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열거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사진 속 사건만을 기사로 작성하고 이야기하였으나, 점차 사진을 보면서 사진속의 사건뿐 아니라 사진 속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까지도 이야기하게 되고 자신의 알고 있던 생각까지도 이야기하게 되어 문장 수가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사진을 이용한 이야기 꾸미기활동이 문장수의 향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이승혜, 2006)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승혜(2006)의 연구에서는 문장을 측정할 때 복문과 단문을 한 문장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문과 복문을 두 문장으로 측정하여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내용의 일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내용의 일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소그룹으로 자신이 읽은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만들 이야기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나 이야기의 사건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의 새로운 이야기도 접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일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최 경(2012)의 결과와 이야기 꾸미기의 그림 표상활동을 통하여 그림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의 전개로 내용일치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강경희(2013)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화장실 앞에서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기자인 유아가 '화장실에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차례를 지켜요.' 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생각을 조금 하더니 '반칙하면 안돼요.' 라고 덧붙이는 발표를 하였다. 이처럼 사진을 보면서 사진에 나타난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을 파악하여 사진속 내용으로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게 되는 과정에서 내용일치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로 '내용의 연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어린이집 일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내용의 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협동적 이야기 꾸미기 활동과정에서 등장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을 이야기 나누면서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연결함으로써 내용의 구성이나 순서를 연관성 있게 제안함으로써 내용 연계를 향상시켰다는 연구(노은아, 2007)와 교사가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노래 부르기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언어표현이 향상되었고 내용의 연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최미숙, 안지영, 2014)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의 '점심시간'에서 식판에 배식을 받은 후 먹지 않고 앉아 있는 사진을 보면서 '밥을 안 먹고 있어요.' '밥을 먹기 싫어해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밥 안 먹으면 안돼요.'라고 문장을 연결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밥 먹지 않은 유아를 보면서 '먹고 싶지 않은가 봐요, 밥을 안 먹으면 안돼요.' 라고 자신의 생각까지 표현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사진찍기 기자활동에서 사용되었던 사진들이 유아의 어린이집 일과와 관련되어 유아들이 사진의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사진을 관심 있게 파악하고 이를 기사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의 연계성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표현력 하위영역 중 '창의적 표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적용하였던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표현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안종순, 2006; 강경희, 2013)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밥을 먹지 않는 사진으로 기자발표 할 때 먹기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여 '싫은 것은 당근, 당근하면 주황, 주황하면 오렌지, 오렌지는 둥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먹고 싶지 않은 밥과 먹기 싫은 당근을 연상하여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 유아를 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유아들에게 기자라는 직업을 소개할 때 기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험집단의 유아들에게도 기사를 만들 때에는 사진 속 사건을 중심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교사가 유아들이 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심을 자극하면서 창의적 표현을 자극해 주어야 했으나, 사진에 나온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작성하여 말하도록 한다는 것에 집중하여 유아들의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에 신경 쓰지 못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유추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기자활동을 실시 할 때 사진 속 상황만이 아닌 사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아들의 창의적인 생각도 드러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서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창의적 표현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선행 연구(안종순, 2006; 강경희, 2013)를 볼 때 추후 창의적 표현 효과를 알아보는 후속실험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2.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 유아들의 또래유능성이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수의 차이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증진에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아들이 공동목표를 위해 또래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며, 수용하고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등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의미 있는 활동임을 보여준 연구(이미향, 2014; 박수연, 2011)와 유사하다. 또한, 자발적으로 친구를 도와주고 다른 친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며 소극적인 유아에게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신체활동의 경험으로 또래유능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이수진, 서현아, 한희정, 2013)와도 유사한 맥락이며, 소집단으로 노랫말을 바꾸거나 동작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직접 악기를 만들어 연주도 해보고 그것을 또래들 앞에서 발표해 보는 경험으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증진되었다는 연구(서태균, 류경희, 2016)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이 기사작성 토의 중 기사제목을 결정하는데 기사제목을 결정하지 않고 꾸미는 일을 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유아에게 다른 유아가 '잠깐만 기다려'하고 이야기 하자 시무룩해지면서 삐지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활동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맞추어 기다리고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그룹별 토의활동을 할 때 찍힌 사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서로 이해하며 도와가면서 그룹별 기사를 만들어 내는 경험을 갖게 되고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수용하게 되어 또래 유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진기자가 된 유아는 직접 찍은 사진이 기사 사진으로 선택되는 순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기사작성에 참여하게 되어 또래유능성이 증진되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또래유능성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교성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사교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증진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이 또래들을 보다 잘 수용하고 수용 받으며 모든 유아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되었다는 연구(박종수, 2008)와 전통놀이의 과정을 통해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전략이나 협동 배려등과 갖춘 사회적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사교성이 증진되었다는 연구(최미순, 권경숙, 2014)와 유사하다. 또한 이만수와 정세호(2014)의 연구에서는 또래들과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신체를 움직이며 팀원으로 구성된 유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경험하였으며, 팀원의 인원수를 변화하여 전체 유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사교성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 유아들을 촬영하면서 여러 유아들과 접촉하게 한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사교성에 긍정적이라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초반에는 사진 찍는 대상이 유아가 친하거나 관심 있는 유아들만 사진에 담았으나 실험이 진행될수록 사진에 담는 유아의 대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고, 그룹 활동 중에도 친한 유아하고만 대화를 하던 모습에서 점차 친하지 않는 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에게도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5장의 사진을 선정할 때 서로 자기가 원하는 사진으로 하겠다고 서로 주장 하였으나 점차 자신이 사진을 고르는 이유를 이야기도 하고 다른 유아가 고른 사진에 대해 반대하는 사유를 이야기 해 나가면서 사진을 선정하는 모습은 또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사교성 증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으로 친사회성의 경우에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친사회성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리드믹스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면서 친구에게 악기를 나누어 주고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 할 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사이좋게 지냄으로써 친사회성이 발달하였다는 연구(김명희, 2018)와 자연친화 활동을 둘이상의 또래와 협동적으로 경험하면서 더 쉽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나의 배려로 또래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친사회성이 증가되었다는 연구(신민정, 권연희, 2014)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기사꾸미기를 하면서 기록하는 옆 유아를 방해하자 화내는 모습에 다른 유아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서 상황을 조율하기도하고 '내가 그려줄게' 와 '이것을 다해도 되지?' 라고 동의를 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아들이 서로 의논하여 역할을 나누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역할만 하려고 하였으나, 점차 연구가 진행되면서 유아들은 역할을 잘 수행해 내고 다른 유아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며 기다려 주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유아들은 하나의 기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소그룹별로 의논하고 결정하여 함께 협력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경험을 하였기에 친사회성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마지막으로 주도성에 있어서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만들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해 또래와 다양한 상호작용과 협동이 이루어지고, 문제해결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또래가 수긍할 수 있도록 피력하는 과정들을 통해 주도성이 증가하였다는 연구(서현, 김석언, 박미자, 2017)와 유사한 맥락이며, 협동적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모둠 구성원들에게 표현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기도 하여 주도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김태미(201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시작하고 놀이할 때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여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주도성이 증진되었다는 연구(장현정, 이진희, 2013)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도 기사작성 시 '사진을 여기에 붙여 줘. 글씨는 내가 쓸게.' '사진을 붙여 봐. 제목을 정하게'와 같이 순서를 알려주기도 하고 다른 유아가 잘못 붙였다고 화낼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능동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에서 유아들이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진행할 때 사진촬영, 기자발표, 기사작성, 모둠진행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유아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다른 유아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주도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적용하였던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어린이집 일과에 대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했던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언어표현력이 더 향상되었고 또래유능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 교수·학습모형은 유아들이 친숙하고 편안한 어린이집 일과에서 직접 사진을 찍게 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주었고, 유아들이 직접 찍은 사진 중에서 기사화 될 사진을 고르면서 언어적 상호작용과 기사작성의 공동목표로 완성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다. 그리고 소그룹별 기사작성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안하면서 유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며, 기자발표 활동은 바르게 말하기와 듣기의 언어발달 경험을 갖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 교수·학습모형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 증진에 활용해 볼만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10주간에 걸쳐 첫째 날은 사진찍기 활동 둘째 날은 기자활동으로 단기간 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유아의 언어는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활동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자활동에 언어표현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진찍기 활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기자활동에 사진찍기 뿐 아니라 언어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일과에 대하여 직접 사진찍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의 제약과 활동시간의 제한으로 사진에 담긴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사진찍기 환경을 제공하여 사진에 담긴 내용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폭 넓은 어휘 탐색지원과 언어적 경험이 확장 되도록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언어표현력의 하위요인 중 창의적 표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선행연구와는 결과를 달리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실행으로 창의적 표현에 대한 후속 결과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강경희(2013). 그림책을 활용한 표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은선(2010).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은주(2009). 통합적 전래동요활동이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선경(2006). 사진매체의 특성을 통한 다중적 자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운숙(2018).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립국어원(2016). **표준국어대사전.**

권연희(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 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2**(2), 29-48.

김경철, 박미정(2009). 사진 활동을 통한 유아의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해 변화. **어린이미디어연구, 8**(2), 65-98.

김경철, 박현진(2005). 디지털카메라의 유아교육기관 현장 활용. **어린이미디어연구, 4**, 129-156.

김광수, 김현정(2016). STEAM기반 사진찍기 확장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개발에 미치는 효과. **사고개발, 12**(4), 23-39.

김기국(2003). 사진텍스트의 기호학적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42**, 25-5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남임(2011).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도향(2016). 인성교육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협동 미술활동이 유아의 자아 개념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희(2018). 유리드믹스 리듬교육활동이 만 5세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연(2018).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 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이야기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영(2015). 유아의 실행기능, 자아 존중감, 정서지능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재, 황지애, 조윤영, 윤진주(2012). 유치원교육활동지도서에 나타난 유아 언어 교육 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209-232.

김수연(2012). 가정연계 기자발표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발달 및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 최순영(1995). **인간의 사회적 성격적 발달.** 서울: 학지사.

김순임(2003).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의 언어생활영역 관련 활동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자(2000). 이야기 꾸미기활동이 유아의 말하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옥(2003). 동화짓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창의성에 및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옥(2012). 기상 캐스터 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2006). 유아의 정서 지능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용승(2012). 자기 주도적 사진을 활용한 학습 흥미도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2013). 사진을 활용한 숲 체험활동이 유아의 환경 감수성 및 환경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조부경(2013). 사진을 활용한 숲 체험 활동이 유아의 환경 감수성 및 환경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2**(2), 23-46.

김은희(2017). 점토놀이와 그림책 읽기활동에서 나타난 교사의 상호작용 유형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김지영(2010). 시각문화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기획-사진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0**(5), 576-578.

김지영(2011). 학교교육으로서 사진교육에 관한 연구. AURA, 24, 7-17.

김진형(2016).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STSS지속가능과학회학술대회, 2016**(6), 21-29.

김철권(1999). 사진의 의미와 사진의 구조. 서울: ONE & ONE.

김태미(2014). 협동적 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은(2013). 유아의 정서이해와 대인 간 문제해결전략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선(2015). 그림책을 활용한 갈등상황 토의 활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규, 최은영, 장석경(2016). **균형적 접근에 기초한 영유아 언어지도**. 경기: 공동체

노연숙, 현혜연, 하동환(2007).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한 유아 사진교육이 이미지 리터러시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AURA, 16, 64-72.

노영희, 김호(2004). 유아의 일상적 내러티브 조직의 성공과 방해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6), 257-27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노은아(2007). 협동적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은아, 최미숙(2007). 협동적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30**, 43-64.

노주희(2016). 협력적 신체활동 경험이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 사고와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태호(2017).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문인경(2013). 사진찍기를 통한 쌓기 놀이 평가활동이 유아의 기하도형이해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정은(2014).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현정(2015). 전래 동요와 전래 놀이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만 3세 유아의 정서지능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정(2009). 사진 활동을 통한 유아의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이해 변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희(2015).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그림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민지, 김민진(2016). 또래유능성, 자아존중감, 교사-유아관계와 행복간의 구조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1), 217-240.

박선미(2011). 유아의 자기 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연(2011). 그림책의 미적요소를 활용한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그림 표현능력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성심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미(2013). 전래동요를 활용한 전통 놀이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 및 또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미(2007). 교사 개입전략을 통한 비사회적 유아의 또래관계 변화과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수(2008). 의사소통 증진활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주희, 이은해(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 221-232.

박현진, 김숙자(2009). 유아 시각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사진 활용.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11), 235-247.

배경희(2007). 발표력 신장 집단상담이 발표불안, 발표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연희(2010). 사진 찍기를 통한 산책활동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경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은미(2008). 환경사진지도 만들기에 나타난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태균, 류경희(2016). 노랫말 바꾸기에 기초한 소집단중심의 창의적 음악활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1**(1), 73-94.

서현, 김석언, 박미자(2017). 일상생활 관련 수 개념 스토리텔링 활동이 유아의 수학적 문제 해결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6**(4), 27-57.

서혜정(2013). 사진기록화 작업으로 숲 활동을 교실에 연결하는 숲 반의 경험에 대한 교육적 의미.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151-180.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송미선(1995). 놀이개입 상황에 있어서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기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윤나, 박희숙(2017). 4차 산업혁명 기반 유아 교육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과 교사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3), 65-90.

송현주(2008). 협동신체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민정, 권연희(2014). 협동적 자연친화 활동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1), 427-449.

안경숙, 임수진(2011). 구성주의 생물학과 생태학적 관점의 자연에 대한 탐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유아교육연구, 31**(5), 113-137.

안문혜(2014) 시각적 이미지 이해와 활용이 창의적 사고와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신혜(2017). 사진 찍기와 사진 활용에 대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종순(2006). 이미지 만들기를 통한 동화책 창작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지희(2005). 환경교과서 사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진과 텍스트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진희(2012). 카메라 프로젝트 언어활동이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어휘능력과 언어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287-309.

양진희(2014). 카메라 프로젝트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컨텐츠학회논문지, 14**(12), 511-526.

엄주익(2014). 사진 찍기를 통한 쓰기교수가 경도지적장애 초등학생의 글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염연정(2009).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협동적 이야기꾸미기활동이 유아의 사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 유능감 및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상원(2012).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 표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그림 표현력 및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경훈, 강순미(2014). 유아의 성격과 기질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2), 745-752.

유란희, 김선희(2017).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행동, 유아의 실행 기능과 정서조절의 인과적 관련성.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11), 207-208.

유지현, 이승연(2017). 전이시간을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만 4세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음운 인식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6**(1), 53-74.

윤재홍 (2008). **방송기자로 성공하는 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윤정희(2009). 단계별 확장활동을 통한 동화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률, 공주희(2010). 사진 이미지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 AURA, 23, 6-15.

이기숙(2016).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협력적 조형 활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창의적 그림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대균, 임자영(2007). 연극놀이가 유아의 언어 표현력, 그림표현력, 신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99-122.

이만수, 정세호(2014). 협력적 신체활동 경험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 기술학회논문지, 15**(2), 883-890.

이모아(2013). 유아 촬영사진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가 일과 활동의 자율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미나(2009). 상호 작용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 지능과 놀이 표현력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향(2014). 협동적 요리 활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라, 김문희, 양종훈(2016). 사진교육을 이용한 유아의 기억력 향상에 관한 연구. AURA, 36, 40-48.

이수영(2012). 사진을 활용한 언어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영, 김경철, 장연주, 최연철(2012). 사진을 활용한 언어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28**(2), 203-221.

이수진, 서현아, 한희정(2013). 또래협동 신체활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1), 81-101.

이숙재, 박인숙(1996). **유아를 위한 언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이승미, 하지영, 서소정(2016). 유아의 기질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2), 277-297.

이승현, 조인희(2011). 현대 미디어 시대에서의 아나운서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2), 9-11.

이승혜(2006). 일상사진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자(2009). **유아 언어발달과 지도.** 경기: 양서원.

이윤영, 이문옥(2010). 명화감상을 통한 언어활동이 유아의 어휘력 및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99-118.

이은영(2000). 이야기 꾸미기활동과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 표현력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우(2014). 자연사진감상과 연계한 숲 체험활동이 유아의 과학과정기술 및 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강(2012). 방송기자의 세계. **한국방송학회, 2012**(11), 43-35.

이 정(2018). 사진을 활용한 주말지낸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원(2007). 일상생활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가 정신지체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경(2004). 사회적 유능감 증진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성(2016). [역할인식] 방송기자는 [ ]이다. **방송기자, 29**, 14-15.

이차숙(2004). **유아 언어교육의 이론적 탐구**. 서울: 학지사.

이차숙, 노명완(1994). **유아 언어교육론.** 서울: 동문사.

이하원(2014). 교사 - 유아 관계 및 또래 유능성과 유치원 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안나(2013). 사진을 통한 시각과 감각놀이.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2), 1-16.

임윤정, 유택상(2011). 사진의 특성에 따른 화예디자인 연출에 관한 연구.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24**(20), 221-244.

장영애(1981). 가정환경 변인과 4-6세 아동의 언어 능력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유진(2015). 유아의 디지털 카메라 놀이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 예술교육 도구로서의 디지털 카메라. **조형교육, 54**, 209-240.

장현정, 이진희(2013). 생활주제에 따른 모래놀이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97-117.

장화심, 유성호(2006). 사진을 활용한 시 창작 교육의 가능성. **교원교육, 22**(3), 135-15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유영(2011). 균형적 접근법에 기초한 유아 언어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설희, 류은주, 안연경(2010).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33-352.

정옥분(201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윤희(2015). 사진 찍기를 통한 쓰기활동이 유아의 개인적 내러티브와 쓰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재(2014). 동화를 활용한 협동 미술활동이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 해결 사고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화, 방은영(2017). 동요를 활용한 협력적 신체활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5**(4), 151-169.

정재한(2009). 문화예술 교육정책과 사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사진문화예술 강사제 도입을 준비하며. **AURA, 21**, 98-111.

정지나(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 내적 표상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한조(1997). **사진감상의 길잡이.** 서울: 시공사.

조기연(2011).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을순(2008). 협동 미술활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인영(201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 효과 및 조절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진희(2016). 방송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영희(2001). **유아 언어발달과 교육.** 서울: 교문사.

중앙일보뉴스 [웹 사이트]. (2018년 4월 19일). Retrieved from http://news.joins.com/article/22272200.

지성애, 정재은(2011). 유아의 정서지능과 인지능력, 또래상호작용, 유아-교사 관계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5**(5), 335-358.

차현진(2017).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비주얼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제언에 대한 토론. **한국 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6), 77-79.

최 경(2012). 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그림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2), 297-321.

최명하(2012). 사진을 활용한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 및 환경보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명하, 조부경(2012). 사진을 활용한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 및 환경보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1**(3), 115-139.

최미숙, 안지영(2014).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노래부르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2), 121-139.

최미순, 권경숙(2014). 세계 여러 나라 전통놀이가 유아의 행복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60**, 165-199.

최세환(2006). 발표 보조 견 프로그램이 아동의 발표 행동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연철(2005). 사진을 활용한 유아교육연구방법 모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0**(4), 89-113.

최연철(2009). 유아가 찍은 사진에 귀 기울이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217-237.

최연철, 신설아(2013). 사진면접을 통해 유아의 일상에 다가가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129-15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최윤지(2016). 어머니의 부모역할기능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은선(2005). 심미적 질문에 따른 노랫말 짓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아, 김혜순(2011).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과 언어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0**(2), 253-271.

최현정(2010). 산책을 통한 탐색활동이 유아의 그림표현력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은혜, 김영실, 곽경화(2017). 사전 설계 및 사진 찍기를 활용한 쌓기놀이 활동이 유아의 공간 능력 및 공간표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6**(4), 81-106.

한정식(2004). **사진예술개론.** 서울: 눈빛.

허미애(2007). **이야기나누기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공동체.

허정심(2004). 아나운서활동이 유아의 언어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은희(2002). 언론사의 경영적 통제 요인이 기자의 홍보원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혜경, 김명화, 김정아, 김세루(2014). **영유아 언어교육.** 서울: 학지사.

황영미, 이재현(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환경을 활용한 의사소통교육 모델연구. **공학교육연구, 20**(3), 32-41.

Berger, J.(2000). 본다는 것의 의미. The Meaning of Looking. (박범수 역.). 서울: 동문선. (원저 1980년 출판)

Byrnes, J., & Wasik, B. A.(2009). Picture this: Using photography as a learning tool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Childhood Education*, 85(4), 243-24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eMarie, D., & Ethridge E. A.(2006). Children's images of preschool: The power of photography. *Young Children*, 61(1), 101-104.

Feininger, A.(1981). 사진예술의 창조(최병덕 역.). 서울: 사진과 평론사. (원저 1975년 출판).

Lowenfeld, V.(1957). Creative and mental grow (3rd ed.) Oxford, England Macmilan.

Https://www.smore.com/8xrgd-author-s-chair

Masters, J. C., & Furman, W. (1981). Popularity, individual friendship selection, and specific peer interact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344-350.

McGee, L. M., Richgels D. J. (1990) *Literacy's beginning : Supporting young readers and writers.* Boston, MA : Allyn & Bacon.

Neuman, S. B., Copple, C., & Bredekamp, S. (1998). Learning to read and write :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s for Young Children. *The Reading Teacher*, 52(2), 193-213.

Rand, G., & Zakia, R. D. (2011). 사진교육론(허현주 역.). 서울: 월간사진. (원저 2006년 출판).

Schwab, K. M.(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 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원저 2016년 출판).

Shore, S.(2002). 사진의 문법. The Nature of Photographs(김우룡 역.). 서울: 눈빛. (원저 1998년 출판).

Wellhousen, K.(1993). Eliciting and examining young children's storytelling.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7(2), 62-6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1> 유아 언어표현력 검사 도구

< 유아 언어표현력 검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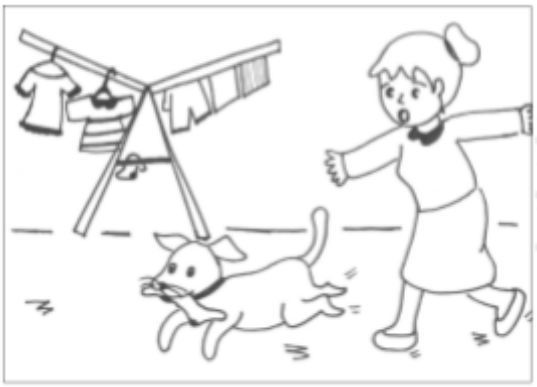
1) 언어표현력 검사 도구 그림 및 하위영역 '내용의 일치' 기준

가)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1) 부엌그림

① 여자아이가 그릇을 깨뜨렸다.
② 엄마가 아이를 야단치고 있다.
③ 여자 아이가 울고 있다.
④ 고양이가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다.

(2) 빨래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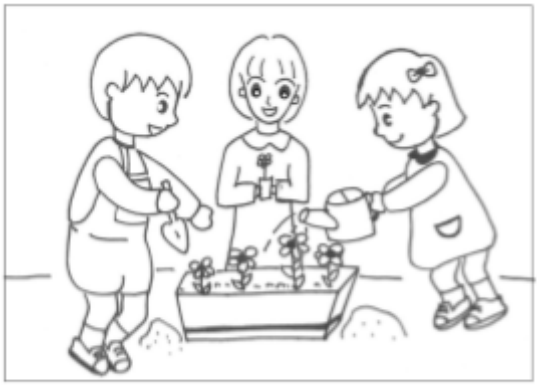


① 엄마가 빨래를 널고 있다.
② 강아지가 빨래를 물고 달아난다.
③ 엄마가 강아지를 쫓아간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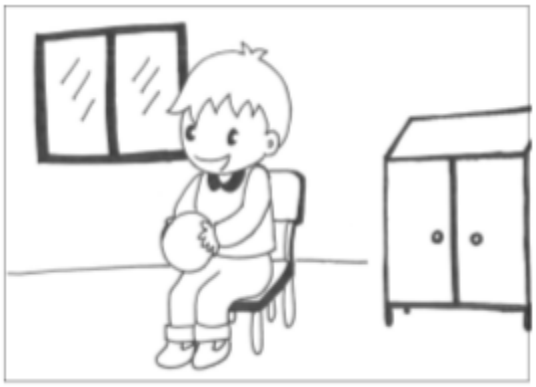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식물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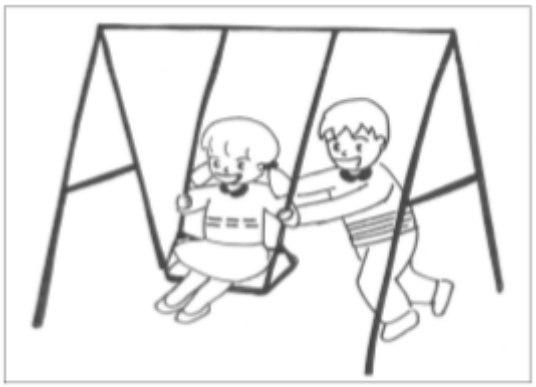
① 여자아이가 꽃에 물을 주고 있다.
② 남자아이가 흙을 파고 있다.
③ 다른 여자아이가 꽃을 들고 있다.

(4) 공 잡기



① 남자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
② 공을 잡고 있다.

(5) 그네타기



① 여자아이가 그네을 타고 있다.
② 남자아이가 그네를 밀어준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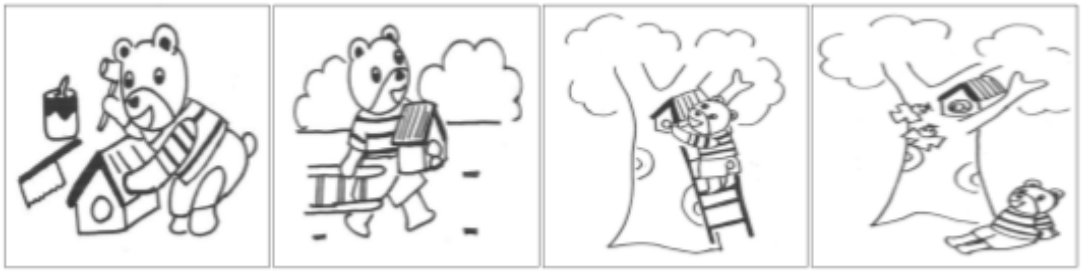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

(1) 하루일과 이야기

· 유치원에서 선생님께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고 집에 와서 엄마와 인사한 후,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엄마, 아빠와 밥을 먹는다.

(2) 곰돌이 이야기



· 곰돌이가 새집을 만들어서 사다리와 새집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자 새들이 들어와 살며 곰돌이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언어표현력 검사 도구 개인별 응답지 및 채점표

집 단 명: **번 호:** **유 아 명:**
생년월일: **검사일자:** **검사자명:**

	제시그림	유아응답	채점표(사전검사)					채점표(사후검사)				
			단어수	문장수	내용일치	내용연계	창의표현	단어수	문장수	내용일치	내용연계	창의표현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부엌 그림											
	빨래하는 날											
	식물 심기											
	공 잡 기											
	그네 타기											
그림보고연계 성있는 이야기 꾸미기	하루 일과 이야기											
	곰돌이 이야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1> 유아 또래유능성에 대한 검사도구

<유아의 또래유능성 척도>

* 유아가 평소 생활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유아에게 관찰되어지는 전반적인 행동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한 문장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명	(남, 여)	생년월일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나 활동을 주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아이와 갈등을 경험할 때 타협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아이들이 이 아동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기주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아이에게 양보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아이들이 이 아동과 함께 놀고 싶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를 재미있게 이끌어간다.	①	②	③	④	⑤
11	장난감이나 교구를 다른 아이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쓴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러 아이들과 고루 친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아이들이 따라 할 만한 놀이나 활동을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아이에 비해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초록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박 나 경
지도교수 서 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또래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자활동의 방향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2.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언어표현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 또래유능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G시에 위치한 D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20명과 C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20명이다. 실험집단은 D어린이집 만 5세 유아 20명, 비교집단은 C어린이집 만 5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처치는 2017년 7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10주에 걸쳐 총 20회차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누리과정의 생활주제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생활주제에 따른 어린이집 일과활동에 대한 느낌 발표하기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언어표현력을 측정하기 위해 장영애(1981)가 4-6세의 언어능력 측정을 위해 제작한 검사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와 이은해(2001)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교사 평정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료를 수집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으며,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실험 전에 존재할 수 있는 집단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검사 점수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전체와 창의적 표현을 제외한 하위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에게 친숙한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를 통하여 또래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관찰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며, 유아들이 소그룹별 토의활동을 하는 기사작성 활동에서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기자발표 활동은 바른 말하기가 이루어져 언어표현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이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전체와 하위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는 유아들이 소그룹별 기사 작성 과정에서 서로 도와주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안하면서 유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는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도 수용하게 되어 또래 유능성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일과의 사진찍기 기자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 유능성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사의 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미국 다이빙 선수인 로라 윌킨스가 중얼 거리 듯 논문을 써 가는 내내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늘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인도 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가 해 낼 수 있을까 걱정으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 끝을 맺으려합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인내와 겸손, 사람됨을 조금은 깨닫게 되었고,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더 넓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먼저 학문의 가르침과 겸손함, 제자 됨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셨고, 논문 주제에서 제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신 서 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칠 때 즈음엔 어떻게 아셨는지 칭찬과 격려로 다독여 주시고 건강이 제일이다 며 던지시는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박주성 교수님과 마음으로 살펴 봐 주시고 투박한 듯 정이 담긴 격려의 말씀과 논문을 쓰는 것은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주신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박미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 주시던 임지윤 교수님과 마주칠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윤경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따스한 마음으로 용기를 얻게 해 준 고마운 강명희 선생님과 진옥, 인경, 미영, 혜미 선생님의 지지와 격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고영숙 선생님과 박만순 선생님 보고 싶은 도레미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그 누구보다 공부하는 데 말없이 지원 해 주고 힘이 되어준 남편과 엄마의 SOS요청에 언제든지 달려와 알려주고 도와준 정민이, 신경 쓰지 않도록 야무지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생활하고 있는 혜민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언제나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일일이 고마움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Collection @ chosun